



서울대 同窓會 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金在淳
편집인 鄭宗澤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5 • FAX: 703-0755
인쇄처 한길기획

은행지로번호 7500875
대체구좌 010017-31-0621565

제 232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7년 7월 15일

[1]



재학생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환경화학공학연구실에서 실험에 열중하고 있다.

「勉學」앞에 여름 더위 없다!

관상춘추

방학을 맞이한 모교는 한적하기 그지없다. 그 많은 학생들은 자태를 감추고 이따금 승용차가 오가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공들여 심고 가꾼 수목들은 이제 무성하게 자라서 염천하에서도 그 싱싱함을 자랑한다.

학생소요가 성행했던 시절에는 방학이라고 해서 학교가 이렇게 조용하지는 않았다. 방학은 학생운동의 귀중한 준비기간이었다. 그래서 캠퍼스는 학생들의 이합집산의 근거지였다. 지금도 철이 지난 벽보나 현수막이 나부끼고는 있으나 옛날과 같은 열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조용한 속에서 대학은 숨쉬고 있다.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각 도서관이나 독서실에는 면학의 열기가 자욱하다. 각 실험실에서는 폭염을 무릅쓰고 정상시와 다름없는 분주한 연구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방학과 모교의 정경

몇해 전에 시작된 계절수업도 이제는 정착되어 많은 학생들이 학기중에 미흡했던 학업을 이 계절수업으로 보충하고 있다. 그들은 요즘의 학원소요를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

이다.

그동안의 암울했던 소요의 계절을 상기해 볼 때 오늘의 모교의 안정은 우리의 마음을 한결 든든하게 해준다.

이제 우리는 변동하는 세태속에서 소리없이 변해가고 있는 모교를 직시하고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희망과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의 경선양상은 큰 뜻을 갖는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대선의 예비주자들은 대부분이 우리 동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에 있어 우리 동문은 모든 면에 있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모교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번 선거는 슬기롭게 치러져야 한다. (榮)



좌로부터 朴昌滿수석부회장, 蘇鎮文회장, 河容秀부회장, 李漢植감사, 李勝子부회장, 安鍾九대사, 盧在煜동문, 李龍洛고문, 金利珣총무, 金虎範기획간사, 吳華英부총무.

시카고지부

창립 15주년 기념 야유회 펼쳐

시카고지부동창회(회장 蘇鎮文)는 지난 6월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Busse South Forest Preserve에서 창립 15주년 기념 야유회를 개최했다.

安鍾九총영사를 비롯해 동문

가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동문 자녀들의 얼굴분장대회, 노래자랑 등이 있었으며 줄다리기, 발야구, 배구 등을 통해 오랜만에 활기찬 하루를 보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재미동창회 李丙俊명예회장, 吳仁錫회장, 同會 宋宰鉉고문, 蘇鎮文회장이 출연한 상품들이 선물로 증정됐다.

한편 同會는 창립 15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동창회의 역사와 주소록을 수록한 「總覽」을 발행키로 하고 간행기금 및 광고 협조를 바라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지부

신임 회장에 崔順模동문 취임



앞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崔회장, 高正培 前총무, 洪淳哲 前회장, 柳東星섭의, 崔靑一부회장, 崔信根재무, 朴河一총무.

캐나다 밴쿠버지부동창회(회장 洪淳哲)는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崔順模(55년 醫大卒)동문을 선출했다.

이어 부회장에 崔靑一(58년 文理大卒), 총무이사에 朴河一(64년 文理大卒), 재무이사에 崔信根(65년 藥大卒), 섭의이사에 柳東星(63년 工大卒)동문을 선임했다.

신임 崔회장은 「금년에도 News Letter 발간과 더불어 동문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한인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동문과 비동문 각 1명씩을 선정, 관악상(가칭)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고문회의 신임 의장에 金在淳회장 만장일치로 선출



지난 6월 12일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장 3층 회의실에서 통일고문을 비롯한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고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본회 金在淳회장을 통일고문회의 의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金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에 기본적 시민의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된 우리나라가 세계의 모든 국가들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역설하고 「통일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만큼 각계의 역

량을 총동원하는 방향에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문들이 적극 봉사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통일고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 국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에 관한 제반정책 및 방안의 연구는 물론 국내 및 국외의 통일 촉진활동을 조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회 각계 인사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통일고문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 현재 30명의 고문으로 구성돼 있다.

(變)

「포켓용 DIARY」를 드립니다.



본회는 그동안 모교와 동창회 활성화에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동문여러분께 보답하고자 98년 「포켓용 DIARY」를 제작, 우송해 드릴 계획입니다.

단, DIARY제작에 드는 비용과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97년도 동창회비를 12월말까지 납부해 주신 동문(이사, 일반 포함)에 한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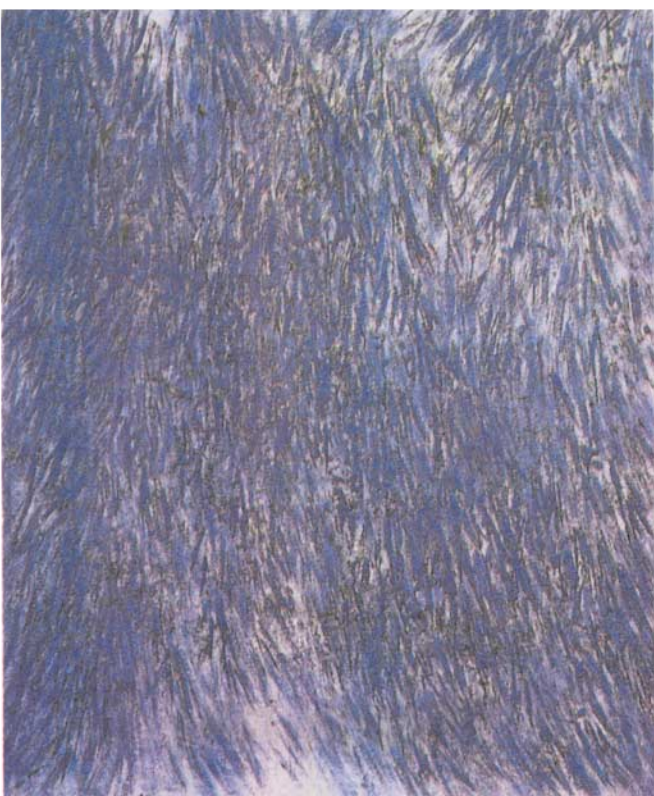
서울대 총 동 창 회 사 무 처

미술작품

金 春 洙 作

〈작가 약력〉

- △81년 미대 졸업
- △84년 대학원 졸업
- △80년 제8회 양대판당전
- △83년 한국작가 3인전
- △85년 LA Artcore초대그룹전
- △88년 레알리페 서울
- △90년 예술의 전당 개관기념전
- △92년 한국현대미술 21
- △93년 제3회 토탈미술대상 수상
- △95년 오늘의 동·서 작가 85인전
- △96년 21세기를 향한 비전
- △현재 모교 미대 서양화과 교수



UNTITLED 9670, 173X143cm, 캔버스위에 아크릴릭, 1996

주요목차

동문 칼럼	9면
틈새와 네트워크의 조화	朴三圭
동문을 찾아서	13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金殷泳위원장	
기획탐방	14면
디지털산업의 선두주자	(주)건인
모임탐방	15면
녹색연합 盧隆熙공동대표	
서울대가족	22면
허브나라 李鎬淳동문가족	
화제의 동문	23면
한국은행법집연구회 金棟鉉회장	

사범대학

明鏡會서 기금 1천만원 출연



師範大學同窓會(회장 閔丙峻)는 지난 6월 14일 모교 교수회관 대연회실에서 1백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閔회장은 『明鏡會 누님들께서 1천만원의 동창회 기금을 기탁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 사랑의 동창회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金宗西교육개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동창회는 혈연관계와 같은 끈끈한 관계로 위계성이 중요하다』며 『스승됨의 길은 올바른 인간됨의 길』이라고 역설했고, 黃載璣학장은 『모교

는 교육정보화 정책으로 세계적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모교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同會는 愼鏞來(56년卒·경남부교육감)·鄭衡奎(57년卒·강동교육청교육장)·尹亨遠(60년卒·충남대총장)·朴炳浩(60년卒·교육행정연수원장)·沈玟漢(62년卒·동부교육청교육장)·琴承鎬(64년卒·국제교육진흥원장)·崔熙善(65년卒·인천교대총장)·李元雨(69년卒·서울시부교육감)·具寬晝(77년卒·충북부교육감)동문에게 축하화환을 전달하고, 1천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한 明鏡會(회장 李瓊蘭)에 감사화환을 증정했다.

서울대 트리비아

Q3. 각 단과대학의 지정색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A. 인문대: 백색(white), 사회대: 군청색(prussian blue), 법대: 자주색(purple), 경영대: 진밤색(light sepia drab), 사범대: 하늘색(light blue), 자연대: 진농색(yellow ochre), 공대: 감색(orange), 의대: 진녹색(viridian), 치대: 연보라(lilac), 약대: 옥색(olive open), 농대: 진노랑(chrome yellow maize), 수의대: 회색(gray), 음대: 분홍색(pink), 미대: 밤색(brown), 가정대: 노랑색(lemon yellow).

졸업식때 입는 석·박사 가운데 다는 후드의 색깔이 각각 다른 것은 이 때문이다.

뉴욕지부

張相吉동문 방문

張相吉(65년 藥大卒·Medicine Barrel Pharmacy 경영)동문(사진)이 지난 6월 4일 본회를 방문, 李世震사무총장과 환담하고 동창회관 건물을 둘러봤다.



9월부터 제19대 뉴욕지부동창회 회장직을 맡게 될 張동문은 「구슬은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임기동안 동문간에 힘을 합쳐 서로 돕는 동창회를 만들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할 각오라고 밝혔다.

뉴욕지부동창회는 회원들의 참여로 최근 4~5년간 회원명부를 발간하고 연말모임, 봄·가을 골프모임 등 왕성한 활동을 해 왔다.

행정대학원

姜회장 다시 선임

行政大學院同窓會(회장 姜敏求)는 지난 5월 28일 롯데호텔 벨뷰룸에서 모교 盧化俊 행정대학원장, 鄭寅用 前부총리, 曹相鎬 前체육부장관을 비롯해 8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96년도 예·결산과 97년도 예산, 사업보고가 있었으며,姜회장을 비롯해 회장단을 전원 유임시켰다.

또한 同會는 洪 哲(72년卒·교통안전공단 이사장)동문에게 취임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후 조찬을 겸한 자기소개 및 간담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미술대학

尹亨圭동문에게 감사패 증정



美術大學同窓會(회장 李信子)는 지난 6월 13일 모교 박물관 강당에서 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成耆點임시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임원개선에서는 李信子회장 등 회장단을 연임시키고, 부회장에 尹亨圭(63년卒·고려서적 부사장)동문, 감사에 姜滌均(63년卒·모교 교수)동문을 새롭게 선출했다.

게 선출했다.

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다시 맡아 부담감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올해 추진할 사업인 명부발간, 기금마련전시회 등에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同會는 지난 동창전에 많은 도움을 준 尹亨圭동문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의과대학

회관건립기금 모금 방안 논의



醫科大學同窓會(회장 李吉女)는 지난 6월 9일 신라호텔 라일락룸에서 임원진과 동기회장 등 4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97년도 동기회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함춘회관 건립기금 모금 방안에 대해 토

의하고 개원한 동문에 대한 모교와 동창회 참여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한편 李文鎬(46년卒·아산재단서울중앙병원 상임고문)동문(사진 中)은 함춘회관 건립기금으로 1천만원을 李회장(사진 左)에게 전달했다. (元)

경영대학원

임원개선 통해 새 출발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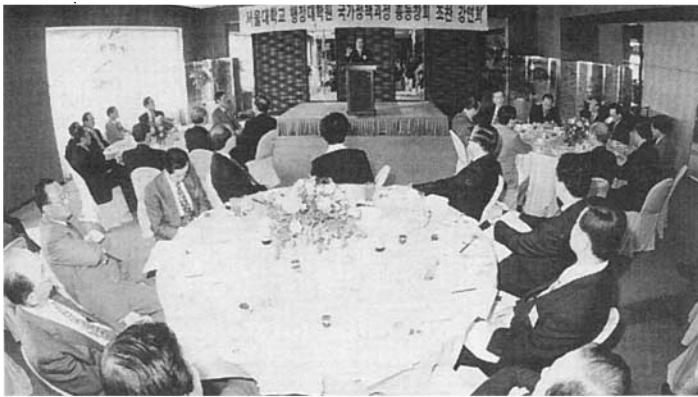


經營大學院同窓會(회장 李燦河)는 지난 5월 30일 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개선을 통해 孔大植(68년卒·대한설비공업대표)동문(인터뷰 BOX 참조)을 신임회장에 선출하고 모교 崔鍾泰 前경영대학

학장을 고문으로 추대하는 한편 韓宗憲(70년卒·외환은행 세종로지점장), 康鉉鎬(72년卒·미 8군사령부 도서보급처 사서과장)동문을 감사에 선임했다.

또한 同會는 지난 4월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진행에 수고한 全永吉동문 등 9명을 비롯, 평생 회비를 완납한 鄭日采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ACAD동창회

姜慶植부총리 초청강연회 열어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朴寬用)는 최근 하얏트호텔 로터스룸에서 1백4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차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 회원이 동참하여 국내최고의 전통과 권위가 있는 동창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96년도 결산 및 사업실적과 함께 97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을 심의했다.

또한 姜慶植경제부총리를 초청, 「최근 경제현황과 향후 경제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듣는 유익한 시간도 가졌다.

신문대학원

기금모금 동참 유도

新聞大學院同窓會(회장 李濟燾)는 지난 6월 12일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印輔吉디지털조선일보 사장, 鄭逸和통일정책연구소장 등 3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鄭晉錫(76년卒·한국의대 사회과학대학장)동문의 「오늘의 한국언론」이라는 주제발표후 참석자들은 질의답변을 통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李회장은 『앞으로도 한국 언론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 산학협동의 실질적 지식을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동문들이 기금모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연락처: 758-8471 權鎔大총무 구좌: 외환 124-18-15100-3 예금주: 이제훈신문대학원)

치과대학

이달 회원명부 발간

齒科大學同窓會(회장 金讚淑)는 지난 6월 17일 신라호텔에서 2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同會는 부회장에 金京愛·夫三煥·黃義康동문, 총무이사에 白大日동문, 협동총무이사에 金容珪동문, 재무이사에 李相勳동문, 공보이사에 崔珣哲동문을 새로이 선임했다.

또한 모교지원 방안과 회원 친목 사업을 논의하고 회원명부를 7월에 발간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AIP 동창회

「경제현황」 세미나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崔在英)는 최근 라마다르네 상스호텔 다이아몬드볼룸에서 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崔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동문들이 하는 사업에 안정과 성장이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하고 『이번 세미나가 기업 경영에 참고가 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사로 초청된 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강의했으며 이후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元)

(알림)

本報는 7월호(제232호)부터 제호를 진취적이고 산뜻한 활자체로 변경, 새로운 모습으로 동문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횡적·종적 유대 강화에 힘쓸 터”

孔大植 경대원동창회장

지난 5월 30일 경대원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된 孔大植(68년卒·대한설비공업 대표)동문을 만나 보았다.

－ 현재 하시고 계신 일은.

『대한설비공업과 상원엔지니어링 대표로 있습니다. 대한설비공업은 각종 플랜트 특히 자동차 생산 공장의 도료공급설비를 전문으로 설계 및 시공하는 회사이며 상원엔지니어링은 대기오염 방지 시설 업체로서 유기용제 및 탈취 처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 동창회 운영계획은.

『기별 모임을 활성화하여 횡적 유대를 강화하고 취미 모임(골프, 등산, 바둑, 여행)을 조직하여 종적인 유대를 꾀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에 따라 담당 부회장을 선임하여 부회장 책임하에 각 분야를 활성화하겠으며 경영학 관련 세미나를 개최, 회원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적응토록 하겠습니다』

－ 동문들께 한 말씀.

『경대원동창회는 경대원 연구과정, 석사과정, 경영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등으로 구



성돼 각 출신간에 호흡이 잘 맞지 않아 동창회가 침체돼 있었습니다. 저는 열과 성을 다해 각 출신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전 회원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농화학과

차기 회장에 金哲煥동문 추대



행사중 푸집한 상품을 나눠주고 있다.(모자쓴 이가 洪회장)

농화학과동창회(회장 洪性根)는 지난 5월 25일 모교 수원 캠퍼스 사색의 동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洪회장과 劉載英, 盧文德, 李光熙, 金秀彦부회장을 비롯한 2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회장에 金哲煥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한 작년 同科 창설 50주년 행사를 치르기 위해 약 6천만 원을 모금하여 행사를 성공리에 마친 洪회장에게 이에 대한 공로로 기념패를 증정했다.

한편 57, 67, 77년 입학동문들이 행사찬조금으로 5백만원을 기탁했으며 이후 동문한마당을 벌이며 행사를 위해 푸집하게 마련한 상품을 함께 나누었다.

八三會

입학47주년 기념 모임 가져



좌로부터 두번째 金珣模회장.

50년도에 입학한 정치학과 동기들의 모임인 八三會(회장 金珣模)는 지난 6월 19일 안국동 한국일보 사옥 옆 「明星」에서 2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 47주년 기념 모임을 가졌다.

단기 4283년에 입학한 「八三會」회원들은 50년 6월 19일 정치학과 입학식을 하고, 23일 전교 신입생 입학식에 참석한 뒤, 단 한번 강의를 받고 6·25에 휩쓸려 그 와중에 동기의 대부분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농생물학과

연 3회 회지 발간

농생물학과동창회(회장 李正雨)는 지난 5월 17일 모교 수원 캠퍼스 8동 소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8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 농약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동문들로 구성된 생우회(회장 鄭正敏)는 장학금으로 1백만원을 농생물학과에 기탁했다.

同會는 동창회소식지를 매년 1회에서 3회로 발간회수를 늘리기로 했으며 지역동문들의 모임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별·취미별 모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약대 69회

승진동문 축하모임

약대69동기회(회장 俞載應)는 지난 6월 12일 강남역 근처 「고향산천」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인 15명의 동문들은 최근 보건복지부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崔修榮동문과 미국 아이오와대학 종신교수로 발탁된 閔日基동문에게 승진기념패를 증정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기들과 쌓인 얘기를 하며 우정을 나눴다.

전자공학과

「소식지」 편집회의

전자공학과동창회(회장 李梓旭)는 지난 6월 4일 모교 호암 생활관에서 전자동문회 50주년 기념사진집 및 소식지 발간 방안검토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개최했다.

同會는 지난 4월 14일 같은 사안으로 회장단회의를, 4월 28일 기간사회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기상학과

동창회 기금 마련에 동참기로



기상학과동창회(회장 韓榮成)는 지난 6월 14일 모교 교수회관 제3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지난 5월 9일 정기총회 준비모임에서 차기 회장에 추대돼 6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李光浩(65년卒·전북대 교수)동문(사진)을 비롯한 20여명의 동문이 참석해 동창회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동문들은 동창회 기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연봉의 일정액을 기금에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부회장에 李天雨(74년卒·기상청국장)·吳載鎬(76년卒·기상청실장)동문을 선출하고 총무에 崔宇甲(83년卒·모교 교수)동문, 감사에 奉鍾憲(66년卒·기상청장)동문을 추대했다.

공업화학과

재학생 1명에게 장학금 전해



좌로부터 趙在英, 朴閔泰, 李根浩, 金石中, 文奎哲, 徐尙哲 동문.

공업화학과동창회(회장 金石中)는 지난 6월 14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2백여 명의 동문 및 동문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모교 방문행사를 개최했다.

金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회원이 1천명이 넘고 이중 2백여 명이 동창회에 참가하고 있어 가슴 뿌듯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金俊容, 李文得, 沈貞燮명예교수가 참석해 후배들로부터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또한 同會는 모든 임원에게 감사패 및 감사장을 증정했으며 학부 4학년인 吳俊鶴군에게 한학기 등록금 전액인 1백 23만4천원을 전달했다.

(媛)

토목공학과

전임 成百詮회장 공로패 받아

토목공학과동창회(회장 成百詮)는 지난 6월 1일 모교 교수회관 본회의실에서 춘계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96년, 97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보고를 한 뒤 차기 임원단을 선출했다.

신임 회장에는 鄭然世(57년卒·한국선금엔지니어링 회장) 동문, 부회장에는 金洪勳(57년卒), 金桂鎬(58년卒), 片度權(58년卒), 金秉麟(59년卒), 李潤植

(59년卒), 郭永駟(60년卒), 金仁植(62년卒), 柳淨圭(61년卒), 梁鉉承(62년卒), 李宗湖(65년卒), 黃光雄(63년卒), 鄭光溶(64년卒) 동문, 재무부회장에는 沈玉鎭(65년卒), 吳義鎭(66년卒) 동문, 감사에는 金 宣(63년卒) 동문을 선임했다.

同會는 1년 동안 수고한 成百詮 前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섬유공학과

간친회 통해 친목·우의 다짐



섬유공학과동창회(회장 孫海東)는 지난 6월 10일 모교 호암생활관 2층 마로니에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 孫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섬유업계가 불경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동문들간에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협조하여 이를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가 끝나고 간친회가 계속돼 동문들은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이순테니스회

네 게임이상 펼쳐 노익장 과시



耳順테니스회(회장 馬景錫)는 지난 6월 6일 모교 교수테니스장에서 40여명의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2회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5일 예정되었던 춘계대회가 우천으로 취소돼 9개월만에 대회가 열려서인지 동문들은 서로 근황을 물으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秋憲出 동문이 1백만원, 李海遠동문이 30만원, 李禮植, 金敎成, 全兢烈 동문이 각각 20만원을 찬조했으며, 여성동문으로는 曹曉星, 崔妍嬋동문이 참가해 단합된 모습을 과시했다.

이날 26℃의 고온에도 불구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동안 네 경기 이상을 치르며 노익장을 보여준 동문들은 대회가 끝난 후에도 쉽게

라켓을 놓지 않고 아쉬운 듯 연습공을 주고 받았다.

同會는 「1명의 10보보다 10명의 1보 전진」을 도모하기로 하고 權五均동문을 총무에 선출했다.

약대 인천지부

金泰旭회장 선출

약대 인천지부동창회(회장 辛聖默)는 지난 5월 9일 수립공원벽파 7층 장미홀에서 9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고 원로 동문의 회비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차기 회장은 수석 부회장을 자동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임 회장에 金泰旭(71년卒·현대백화점약국)동

문(사진)을 선출하고, 수석부회장에 嚴隆眞(72년卒·대호약국) 동문, 감사에 張正一(70년卒·장약국)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同會는 이날 金容成(69년卒), 鄭七永(72년卒), 韓達洙(77년卒) 동문에게 약대동창회장상을 수여하고, 李云馥(81년卒), 金仁哲(84년卒) 동문에게 지부회장상을 전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李禮植약대동창회장, 沈昌求모교교수 등 내빈이 참석해 축하했으며, 同會는 李禮植회장에게 50만원의 동창회비를 전달했다.

공업화학 총청지회

초대 鄭鍾九회장

공업화학과 총청지회동창회는 지난 2월 22일 대덕호텔에서 가졌던 준비모임을 거쳐 지난 4월 24일 대덕연구단지내 「청송」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4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회칙 인준을 거쳐 초대 회장에 鄭鍾九(72년卒·동부한농화학상무)동문(사진), 간사장에 崔重權동문, 고문에 金輝中동문을 선출했다.

또한 이 자리에 同科 金石中회장과 朴閔泰감사가 참석, 지회 창립을 축하하고 경조기를 전달했다.

독어독문학과

매년 6월10일 정총

독어독문학과동창회(총무 李馨秀)는 지난 5월 29일 장충동 앰배서더호텔 베르사이유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姜斗植동문(51년卒)을 비롯한 60여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는 경과보고 및 전기 결산보고를 한 후 원로 동문들의 인사와 참석자 소개순서가 있었다.

同會는 회장단을 구성하지 않고 총무 및 실무위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무위원은 林局載, 林宗大, 李明純, 金一洙, 朴基岸, 尹五淑, 金洪根동문이며 同會는 매분기마다 동문회보를 발행하고 동문명부를 매년 1회 수정 발간하고 있다.

또한 참석자들은 내년부터 6월 10일에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건축학과

제11회 체육대회 성황리에 끝내



건축학과동창회(회장 李商淳)는 지난 5월 24일 모교 학군단운동장에서 1백50여명의 동문 및 동문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체육대회 찬조금으로 18회 동문일동이 4백50만원, 李회장이 1백만원, 대림산업동문일동이 60만원, 鄭仁澤동문이 50만원, 愼國範, 崔舜男동문이 30만원, 尹張燮, 辛鉉植, 鄭日榮

동문이 각각 10만원을 출연했다.

동문가족들은 족구, 소프트볼 등 체육경기와 바둑대회, 보물찾기에 참가하며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껏 즐겼다.

同會는 이날 동창회원 명부를 발간하고, 참석자들은 체육대회가 끝난 후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과 밤늦도록 어울리며 정을 나눴다.

농업교육 농촌사회전공

崔敏浩교수 논문 봉정식 가져



농업교육과 농촌사회교육전공동창회(회장 徐圭善)는 지난 6월 6일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에 있는 한국농업전문학교 강당에서 정기총회 및 崔敏浩동문의 회갑기념식을 개최했다.

오전 행사와 오후 행사로 나누어 치러진 이날 행사에서 오전에는 교수와 동문, 가족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0여년간 同科에서 교수로 재임하다 현재 한국농업전문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崔동문의 회갑기념식 및 논문집 봉정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徐회장이 崔동문에게 동문들의 뜻을 모은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모교 교수인 金性洙동문은 한국농촌지도학회 초대 회장을 지낸 崔동문의 업적과 노고를 기리는 기념패를 증정했다.

이어 오후 행사에서는 정기총회를 통한 임원개선이 있은 후 친목행사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회장에 李甲載

(78년卒·북문횃집 사장)동문, 총무이사에 朴德秉(91년卒)동문, 감사에 金鎮模(85년卒), 崔榮倡(93년卒)동문을 추대했다.

불어교육과

직능별 회원관리

불어교육과동창회(회장 李起台)는 지난 6월 17일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은 회지 발간계획을 논의하고,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학 10주년, 20주년, 30주년을 맞는 3개 학년이 공동주체가 돼 내년 동창회행사를 맡아 추진하고 동문들이 사대동창회 주최 등산대회 및 총동창회 주최 가을 등산대회에 참여토록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동문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만큼 소의되는 분야가 없게 하고 직능별로 회원들을 관리, 회장단과의 월별 만찬모임을 갖기로 했다.(媛)

통일독일을 2년 7개월만에 다시 돌아 보았다. 한반도에는 남북간에 냉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굶주리는 북한 동포에게 식량을 보내자는 민간운동이 통일운동의 물줄기를 이루고 있을 때이므로, 이런 시점에 독일을 다시 관찰하는 것은 유익했다.

지난번에는 독일정부 초청으로 본-베를린-포츠담-드레스덴을 돌며 정부 고위관리와 구동독지역 인사들을 만나며 통일에 따르는 내부 문제를 많이 듣고 묻는 여행을 했었다. 이번 여행은 관훈클럽이 주도하여 각 신문·방송사 정치 및 통일문제 담당 차장급으로 시찰단을 만들어 능동적으로 통일독일을 본다는데 목적이 있었다.

통일 물줄기 이루는 민간운동

7박 8일의 짧은 일정이었으나 일행은 독일 공보처(인터 나찌오네스)의 협력으로 베를린-포츠담-드레스덴-함부르크-슈베른을 부리나케 돌며 각 방면 인사들과 만나 독일의 여러 가지 내부통합 문제를 듣고 질문했다. 이번 여행은 그 흔한 유람과 관광을 철저히 지양하고 관련 고위인사, 전문가들을 만나고 독



安炳燦

경원대 신방과 교수

통일독일 내부통합 현장을 보고

일측과 세미나까지 열어 일정이 매우 생산적이었다. 통일독일은 2년 7개월사이에 더 많이 바뀌었다. 오늘의 통일독일에는 3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서독 출신과 동독출신 그리고 그 중간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옛 서독 사람은 베씨(wessi), 옛 동독사람으로 지금은 신생 연방주에 살게된 사람은 오씨(ossi)라고 부르고 오씨와 베씨의 중간 지대 사람은 보씨(wossi)가 되는 것이다. 독일 통일 7년만에 베씨와 오씨간의 경제적 간격은 많이 좁혀졌으나 심리적 간격을 좁히는 데는 훨씬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독일측 관련 인사들은 솔직하게 시인한다.

신세대만이 장벽 허물 수 있다

동독지역 주민 3분의 2는 자신을 동독인으로, 3분의 1은 독일인으로 느끼는 데 비하여 서독주민 4분의 3은 자신을 독일인으로, 4분의 1은 서독인으로 느낀다고 통계는 가리키고 있다.

통일독일을 돌아보고 느낀 점은 동서독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세력은 신세대라는 것이다. 한반도는 동서독보다 남북의 장벽이 더욱 높고 견고한 곳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력은 한반도 통일과 내부 통합에 몇 갑절 더 중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본보 논설위원)

두문칼럼

틈새와 네트워크의 조화

朴三圭(70년 行大院卒)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산다.

時間, 人間, 空間의 세 단어에는 모두 間이라는 글자가 있다. 間을 우리말로 옮기면 사이, 틈새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틈새에 살고 있다.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유기체나 무기체 모두 틈새가 있다. 이념과 이념,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기업과 기업 등 모든 것에는 사이 즉 틈새가 있다. 이러한 틈새는 자꾸 벌어지려는 습성을 갖고 있다.

방지방면 화를 부른다

틈새는 처음에는 작아서 그 힘이 미미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 커지면 본래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다. 삼풍 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도 처음에는 작은 틈새에서 시작했다. 연인이나 부부도 일단 마음에 틈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서로를 불신하게 되어 결국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틈새는 이처럼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모의류업체는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 사이에서 중저가라는 가격 대를 찾아 새로운 틈새시장을 만들어 성공한 예도 있다. 인간의 욕구가 개성화, 다양화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는 기술과 기술 사이의 새로운 틈새 기술을 낳게 했다. 예를 들면 기계기술과 전자기술 사이에서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가, 화학과 전

자기술 사이에서 케미트로닉스(chemitronics)라는 신기술이 태어났다.

지난해 경남의 기장군수는 지역감정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북 무주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양지역의 민간교류와 정보교환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의대 출신인 기장군수는 한의사 공익근무요원 7명과 함께 지난 4월 12일 무주군 민회관에서 주민을 상대로 한방 무료진료 활동을 벌였으며 앞으로도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매결연을 통하여 영·호남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벽을 무너뜨려 화합으로 이끌어낸 좋은 예이다.

경기도 광주 어느 초등학교

에서는 6학년 학생과 1학년 학생을 짝을 지어 주었더니 친동생처럼 잘 돌봐주고 있다고 한다. 과천의 어느 아파트 이웃 주민들은, 등교길 교통안전을 해주는 녹색 어머니회가 인연이 되어 매월 온 가족이 참여하는 운동회를 열고 아파트의 두꺼운 벽을 허물어 시골 마을의 이웃처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산다고 하는 보도도 있다.

보이지 않는 벽 허물어

기업간의 제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세계 최대 호텔체인망을 갖고 있는 홀리데이 인 월드와 이드사와 마케팅 제휴를 하여 상호 고객우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영원한 적대관계일 것 같

은 우리나라의 LG와 미국의 IBM이, 아시아나 항공과 노스웨스트가 상호 이익을 위해 손을 잡기도 하였다.

기업과 기업, 도시와 도시, 국가와 국가, 사람과 사람의 자매결연, 전략적 제휴, 짝짓기, 네트워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경쟁보다는 상호협력이 더 큰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경쟁의 시대에서 적과도 서슴없이 협력하는 사회, 인간의 벽을 허어버리는 휴먼네트워크 사회를 만들어갈 때 우리 인류의 삶은 풍요롭게 될 것이다.

동정

수상

▲崔明官(48년 文理大卒·승실대 명예교수)=최근 번역서 「앙띠오이디푸스-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민음사刊·들뢰즈, 가타리 共著)으로 曙宇철학상 제9회 수상자로 선정됨.

▲姜永奎(52년 法大卒·前스웨덴 대사)=68~73년 주일공사 재임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일 우호 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일본국왕이 수여한 「勳二等瑞寶章」을 山下新太郎 주한일본 대사로부터 전달받음.

▲朴晔容(50년 文理大入·금호그룹 명예회장·本會副會長)=최근 국민문화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음.

▲朴秉濠(55년 法大卒·모교 명예교수)=최근 「근세의 법과 법사상」(진원刊)으로 제4회 玄岩법학저작상을 받음.

▲李宗勳(57년 工大卒·한국전력사장·本會副會長)=최근 전력회사에 수여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에디슨상 대상」을 받음.

▲李昌遠(60년 法大卒·한국단자공업 사장)=최근 「중소기업 전진대회」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음.

▲金光宇(61년 醫大卒)=최근 동아제약과의 협신문이 공동제정 한 동아의료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됨.

▲全 峻(65년 美大卒·모교 교수)=최근 제11회 「김세중조각상」수상자로 선정됨.

▲李一曠(65년 商大卒·대우건설 사장)=최근 「97 제2회 살기좋은 아파트」선발대회에서 최우수아파트상을 수상함.

▲朴陸哲(65년 醫大卒·고려대 교수)=최근 후생신보가 제정한 제27회 지식영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됨.

▲趙洪來(67년 文理大卒·농어촌진흥공사 사장)=최근 한국생산성본부 주최로 열린 제21

회 생산성향상 전국축진대회에서 세계화부문 대상을 받음.

▲朴希峻(67년 商大卒·삼성전자 정보통신부문 사장)=최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부고속망 개통식 행사에서 국무총리로부터 정부고속망 구축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음.

▲鄭康煥(68년 工大卒·태일정밀 대표)=최근 한국무역학회에서 제정한 전기전자부문 무역진흥대상을 받음.

▲朱德仁(70년 法大卒·대우전자 상무)=최근 「제32회 발명의 날」을 맞아 발명진흥 및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철탑산업훈장을 받음.

▲成耆鶴(70년 商大卒·영원무역 회장)=최근 한국무역학회에서 제정한 섬유부문 무역진흥대상을 받음.

▲閔陽基(71년 醫大卒·모교 교수)=최근 제16차 국제비강·부비동알레르기 및 감염학회에서 최우수 기초연구논문상을 받음.

▲梁在鎬(75년 法大卒·양천구청장)=최근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한 「97 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기초구청장혁신부문 대상을 받음.

▲文國現(77년 經大院卒·유한킴벌리 사장)=최근 국내 기업인으로는 처음으로 UNEP(유엔환경계획)선정, 97년도 「글로벌 500」상을 받음.

▲高時穆(8기 AMP·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최근 「중소기업 전진대회」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음.

▲安福鉉(41기 AMP·삼성항공 대표이사)=최근 「제32회 발명의 날」을 맞아 발명진흥 및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음.

▲趙永植(50년 法大卒·경희학

원장)=최근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교육연합(IAE-WP)」에서 수여하는 세계 평화 인증서를 받고 IAE-WP 특별고문에 위촉됨.

▲黃哲秀(51년 師大卒·前국회의원)=최근 전직교육자 단체인 「大韓三樂會」회장에 취임함.

▲林光洙(52년 工大卒·임광토

건 회장)=최근 세종호텔에서 열린 사단법인 충북 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총

북협회(충북도민회) 회장에 재선임됨.

▲金炳珍(50년 工大入·대림그룹 부회장)=최근 대림그룹 회장으로 승진함.

▲朴龍鎭(55년 工大卒·홍익대 교수)=최근 통상산업부 한국산업표준심의회 위원장에 선임됨.

▲車仁錫(52년 文理大入·모교 교수)=최근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유네스코 철학교수에 임명됨.

▲高炳佑(56년 商大卒·前건설부 장관)=최근 성원그룹 비상임 고문에 선임됨.

▲金庸來(57년 法大卒·덕성여대 총장)=최근 서울 롯데 호텔에서 열린 「97 밝은 사회클럽 국제대회」에서 한국본부총재에 선임됨.

▲李祥根(57년 商大卒·신용관리기금 이사장)=최근 신용금고연합회 회장에 추대됨.

▲李貞默(58년 工大卒·포항공대 교수)=최근 해양 오염사고의 예방과 오염된 해양환경의 회생방안을 연구할 「한국해양환경공학회」 초대 회장에 선임됨.

▲金鎮炫(58년 文理大卒·서울시립대총장)=최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에 취임함.

▲金鎮福(58년 醫大卒·모교 교수)=최근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암학회(UICC)에서 Manual of Clinical Oncology 교과서 위암편 저술자

로 결정됨.

▲韓鳳傳(58년 醫大卒·내과의원장)=최근 부산롯데 호텔에서 개최된 「부산의사수필문학동우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추대됨.

▲金禮會(59년 醫大卒·서울백병원 교수)=최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3차 대한암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됨.

▲李俊鎔(60년 商大卒·대림그룹회장·本會副會長)=최근 대림그룹 명예 회장에 추대됨.

▲李英浩(61년 文理大卒·성균관대 교수)=최근 한국 철학회 회장에 선임됨.

▲李在潤(62년 法大卒·중앙대 교수협의회장)=최근 전국사립대학 교수협의회연합회 제7대 회장에 선출됨.

▲吳世賢(62년 商大卒·제일은행 상무)=최근 으뜸투자신탁 운용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함.

▲李忠求(63년 法大卒·前우풍금고 사장)=최근 신영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함.

▲崔浩炳(64년 工大卒·前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부사장)=최근 두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함.

▲河珍圭(64년 工大卒·前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최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에 취임함.

▲金振晚(64년 法大卒·한미은행 전무)=최근 한미은행장으로 승진함.

▲都在承(64년 法大卒·튀니지 참사관)=최근 駐제다 총영사에 임명됨.

▲金峻經(64년 商大卒·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사장)=최근 효성그룹의 신설 팩토링 금융회사인 효성파이낸스 사장에 취임함.

▲成演哲(64년 商大卒·조흥은행연수원 교수)=최근 조흥시스템 대표이사에 취임함.

▲李東煥(65년 文理大卒·신용보증기금 이사)=최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로 승진함.

▲申仲植(66년 文理大卒·시사저널·TV저널 발행인 겸 편집인)=최근 시사저널사 대표이사 겸 발행인에 취임함.

▲權 誠(66년 法大卒·서울고법 부장판사)=최근 방승프로

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

▲金英泰(66년 法大卒·담배인삼공사 사장)=최근 한국산업은행 총재에 취임함.

▲柳鉉鉉(66년 法大卒·새한종합금융 상무)=최근 새한렌탈 사장에 취임함.

▲李秀煥(66년 法大卒·前바레인 대사)=최근 駐고베 총영사에 임명됨.

▲鄭弘翼(67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최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문화정책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에 선출됨.

▲洪敦杓(67년 法大卒·한국은행 국고부장)=최근 경인리스 상무에 선임됨.

▲黃富弘(67년 法大卒·駐가나 대사)=최근 駐네팔 대사로 자리를 옮김.

▲鄭敬用(69년 法大卒·광주검찰부장검사)=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

▲金宗熙(69년 商大卒·통상산업부 무역조사실장)=최근 통상산업부 감사관으로 승진함.

▲金仁柱(72년 法大卒·한국종합금융 부사장)=최근 한국종합금융(주) 사장으로 승진함.

▲鄭夢準(75년 商大卒·대한축구협회장·本會副會長)=최근 국제축구연맹의 홍보업무를 총괄할 FIFA미디어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

▲鄭道彦(76년 醫大卒·모교 교수)=최근 서울대병원 홍보담당 교수에 임명됨.

▲李啓炤(77년 師大卒·통상산업부 석유정책과장)=최근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장으로 자리를 옮김.

▲許眞浩(83년 自然大卒·아이네트 사장)=최근 말레이시아 팔라푸르에서 출범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넷사업자협의체(APIA) 초대 회장에 선출됨.

▲李秉熙(84년 醫大卒·원자력병원 과장)=최근 혈관 및 중재적 방사선학의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술지인 「Journal of Vascular and Interventional Radiology」의 논문 심사위원에 위촉됨.

▲朴鐘勳(24기 AMP·대한생명 부사장)=최근 대한생명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함.

▲柳永杰(26기 AMP·기아자동차

(10면에 이어)

차 서비스 사장)=최근 기아자동차 판매회사 사장에 취임함.

▲黃寅秀(29기 AMP·성일건설 회장)=최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총회에서 제17대 회장에 재선출됨.

▲盧乙煥(25기 ACAD·한국TRS 사장)=최근 고합그룹 정보통신부문 사장에 취임함.

▲申泰姬(32기 ACAD·서울시 여성정책보좌관)=서울시 최초의 1급 행정직 여성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 26일 정년퇴임함.

행사·출간

▲文鴻柱(40년 法大卒·한국공법학회 명예회장)=지난 1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팔순기념 논문발표회를 가짐.

▲金順英(50년 法大卒·前창덕여중교장)=최근 고회기념문집「老마님의 詩」(조선문학사刊)를 출간함.

▲白樂院(51년 醫大卒·인제대 총장·本會副會長)=최근 베트남 정부 및 하노이대학과 의료협력 및 교류에 관해 협의함.

▲徐元宇(53년 法大卒·모교 명예교수)=최근 정년기념 논문집「전환기의 행정법 이론」을 출간함.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宇德 대표·美大同窓會長)=최근 갤러리宇德에서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원로·중진작가들의 작품으로 「한국미술의 지평을 열면서」展을 개최함.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최근 하얏트 호텔에서 姜慶植경제부 총리를 초청.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徐正洙(56년 文理大卒·국어정보학회 회장)=최근 용인대에서 한글입력 처리장치의 통일표준 제정방향 등 국어정보 처리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함.

▲李御寧(56년 文理大卒·이화



여대 석학교수)=최근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동화「이어령 석학교수의 생각에 날개를 달자」출판기념회를 가짐.

▲姜晋求(57년 工大卒·삼성복지 재단이사장·本會副會長)=최근 부산·마산·울산 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형극「개구리왕자」를 무료공연함.

▲咸正鎬(57년 法大卒·대한변호사협회장)=최근 26일 대한적십자사를 방문, 북한동포 식량지원 성금 1억원을 전달함.

▲權赫昇(57년 商大卒·한국일보 상임고문)=최근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경제기자 40년」을 축하하는 모임을 가짐.

▲李吉女(57년 醫大卒·의료법인 길병원 이사장·醫大同窓會長)=최근 실질적인 국내 최초의 선진국형 응급의료센터로 자리잡을 「중앙길병원 응급의료센터」기공식을 가짐.

▲白永勳(57년 大學院卒·한국산업개발 연구원장)=최근 팔레스타인에서 연구원 창립 27주년 기념으로 집필한 저서 「아우토반에 뿌린 눈물」출판기념회를 가짐.

▲張翼龍(58년 工大卒·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本會副會長)=최근 서울 섬유센터 대회의실에서 「미국의 섬유산업혁명」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짐.

▲南時旭(58년 文理大卒·문화일보 사장)=최근 문화일보 갤러리에서 「홍콩반환 기념 사진전」을 개최함.

▲李漢雄(58년 商大卒·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本會副會長)=최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WOCU총회

및 제6차 세계신포럼(ICUF)에 참석함.

▲石世一(58년 醫大卒·상계백병원 척추센터 소장)=최근 일본 정형외과학회 초청으로 「척추측만증에 대한 3차원적인 후방교정술」을 강연함.

▲孫權贊(58년 醫大卒·대한소아감염학회 회장)=지난 6월 16일 앰배서더호텔에서 「소아의 바이러스질환」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曹章煥(60년 農大卒·단국대 총장)=최근 미국 롱비치 아일랜드 캘리포니아주립대와 자매결연을 맺음.

▲韓完相(60년 文理大卒·한국방송대 총장)=최근 충북 대학교에서 「한국사회의 민주화, 반성과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함.

▲成炳旭(61년 文理大卒·한국신문편집인협회 회장)=최근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신문활용교육」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方惠子(61년 美大卒·在佛화가)=최근 독일 크롬벨그시 소재의 「헬호프」화랑에서 개인전을 개최함.

▲許洪(61년 商大卒·대동은행장)=최근 공익금융상품인 「독도사랑통장」에서 조성된 독도 사랑기금 1억원을 경상북도에 전달함.

▲金爽圭(62년 文理大卒·외교안보연구원장)=최근 연구원에서 제임스 코튼박사 등 주요대학 교수 및 언론인을 초청, 「아·태지역 안보와 한반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金光雄(62년 法大卒·모교교수)=최근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 「한국정치, 회생의 길은 없는가」를 주제로 강연함.

▲李洪志(62년 法大卒·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최근 경기도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일본능률협회 모치다 미쓰루 수석컨설턴트를 초청, 「병원경영의 뉴패러다임」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함.

▲鄭世煜(62년 行大院卒·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최근 미국 네바다주립대학 및 라스베이거스시와 공동으로 「관광사업과

개발전략」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

▲崔公鎭(63년 法大卒·한국경영연구소 이사장)=최근 창립 25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창조성본부」의 설립추진을 보고하는 특별기념책자인 「21세기 인간자원개발」을 출간함.

▲朴英哲(63년 商大卒·한국금융연구원장)=최근 롯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金仁浩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초청, 「금융개혁의 전진방향」이란 주제로 강연.

▲張詰薰(63년 商大卒·조흥은행장)=최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조흥은행 창립 100주년 기념리셉션을 개최함.

▲李宗郁(63년 醫大卒·보라매병원장)=최근 입원 및 외래환자, 보호자들을 위해 「이동도서관」을 개관함.

▲高學均(64년 農大卒·아시아농과대학연합회장·모교농생대학장)=최근 모교호암교수회에서 아시아농과대학연합회(AAACU) 집행위원회를 개최함.

▲金榮作(64년 文理大卒·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최근 프레스턴터에서 「한국전쟁의 재조명」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李炯均(64년 文理大卒·한국프레스센터 전무·本報論說委員)=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에서 신방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신문론」을 강의함.

▲姜雄植(64년 商大卒·동남합성공업 부회장)=최근 현대아트갤러리에서 가진 「미카엘라 수녀를 위한 유화전」 수익금을 요양원 환자들의 학자금으로 전달함.

▲司空臺(64년 商大卒·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최근 캐나다 토론토에서 세계은행 주최로 열린 「지식과 발전」 국제회의에서 기조연설함.

▲表相基(65년 工大卒·한국무역대리점협회 회장)=최근 관악산에서 5백여 회원업체 대표들과 함께 그린캠페인을 개최함.

▲郭治榮(65년 商大卒·데이콤 사장·한국CIO포럼회장)=최근

롯데호텔에서 美폴로리다주립대 로버트 주머드교수를 초청, 「정보기술투자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李成千(65년 音大卒·모교교수)=최근 회갑을 맞아 제자들이 봉정하는 논문집 「시승은 노래한다」와 수필집 「한국, 한국인, 한국음악」의 출판을 기념하는 모임을 가짐.

▲南相午(65년 商大卒·한국회계학회 회장)=최근 제주대에서 朴淸夫증권감독원장을 초청, 「회계정보와 증권관리」라는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함.

▲車東世(65년 商大卒·한국개발연구원장)=최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법제화」란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함.

▲吳明(66년 工大卒·동아일보 사장)=최근 공공업무, 학문발전 및 한·미간의 유대강화에 헌신한 공로로 뉴욕주립대 스톤 브룩에서 인문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음.

▲趙由典(66년 文理大卒·국립민속박물관장)=최근 「芮庸海선생 기증 민속자료전」과 「芮庸海전집」출판기념회를 개최함.

▲成基浩(66년 醫大卒·한일병원장)=최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해 평양소재 김만유병원을 시찰함.

▲楊秀吉(67년 工大卒·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최근 「타임」지와 프랑스 국제경제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영국, 브라질 등에서 순회 개최한 「유럽과 동아시아간 경제관계 국제회의」에 참석함.

▲金貴坤(67년 農大卒·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최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주요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교육」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

▲李建榮(68년 工大卒·교통개발연구원장)=최근 과천시와 공동으로 국내 최초의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시범운영사업을 위한 착공식을 가짐.

(12면에 계속)

(11면에 이어)

▲白純之(69년 齒大卒·서울시 치과의사회장) = 최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제52회 구강보건상 시상식과 「치아의 날」 행사를 개최함.

▲李正道(69년 大學院卒·한국생산성학회 회장) = 최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黃斗英(69년 行大院卒·한국새마을금고 학회장) = 최근 제6회 근검절약 실천토론회를 개최함.

▲李元馥(66년 工大入·덕성여대 교수·本報論說委員) = 최근 새로운 시대의 문명과 트렌드를 진단한 「만화로 떠나는 21세기 미래여행」(김영사刊)을 펴냄.

▲朴武益(70년 經大院卒·한국궤협조사연구소장) = 최근 영국런던에서 열린 제50차 궤협 국제회의에 참석, 「한국의 15대 총선 선거 여론 조사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발표함.

▲玄在賢(71년 法大卒·동양그룹회장·本會副會長) = 최근 동양그룹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가짐.

▲林玄鎭(71년 文理大卒·나라정책연구회장) = 최근 프레스센터에서 「깨끗한 선거, 어떻게

이를 것인가」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左承禧(71년 商大卒·한국경제연구원장) = 최근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의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李忠國(71년 齒大卒·연세대구강과학연구소장) = 최근 연세대 치대병원 강당에서 국내외 권위자를 초청, 「구강암 예방」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함.

▲盧宗熙(71년 敎大院卒·한국대학사회교육협회장) = 최근 호텔롯데월드에서 「대학 사회교육기관에서의 학위 및 자격 수여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嚴廷植(71년 新大院卒·철학연구회장) = 최근 성균관대에서 「동서철학의 수용과 한국철학의 정립」이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가짐.

▲李正彬(72년 醫大卒·모교 교수) = 최근 한국소비자연맹 강당에서 「친자감정의 정확도」를 주제로 강연함.

▲崔昌祚(73년 文理大卒·지리학자) = 최근 「한국의 자생풍수 I·II」(민음사刊)를 발간함.

▲徐維憲(73년 醫大卒·강원의대 학장) = 지난 6월 4일부터 강원도민일보에 「서유한박사의 新두뇌건강학」이란 제목으로 연재하고 있으며 이 연재물은 매주 수요일 31회 동안 게재될 예정임.

▲金周伊(74년 醫大卒·중앙길병원 흉부외과 주임과장) = 최근 중앙길병원 심장센터에서 국내 최초 심장·폐 동시이식 수술 성공 및 일반병실 입실 기념 자축연을 가짐.

▲裴圭漢(74년 文理大卒·전국대학교 학생처장 협의회 회장) = 최근 용평리조트에서 188개 대학교 학생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다원사회의 대학생 자치활동」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具滋允(75년 工大卒·전자재료부품연구소 소장) = 최근 한양대 안산캠퍼스에서 「産學館과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역할」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徐廷瑄(76년 醫大卒·모교 교수) = 최근 미국 프레데릭스에서 열린 제13차 암유전자 학술회의에 참석, 「스트레스 단백질의 세라마이드 매개성 아포토우시스 억제」라는 논문을 발표함.

▲孫敬愛(76년 保大院卒·성모의원장) = 최근 공평아트센터에서 전원과 산하의 자연을 유화에 담은 첫번째 개인전을 가짐.

▲韓愛奎(77년 美大卒·조각가) = 최근 관훈동 가나아트샵에서 「어떤 순간」을 주제로 작품전을 가짐.

▲李崇源(77년 師大卒·서울여대 교수) = 최근 네번째 평론집 「서정시의 힘과 아름다움」과 학술연구서 「20세기 한국시인론」(국학자료원刊)을 출간함.

▲朴正植(77년 醫大卒·서울위생병원장) = 최근 청평 사슴의 동산에서 주임급이상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자연수교육을 개최함.

▲金 蜂(79년 音大卒·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장) = 오는 7월 22일 오후 7시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제39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함.

▲河晟奎(79년 環大院卒·중앙대 산업경영연구소장) =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張敦富중국인민대교수 등을 초청, 「한국중소기업의 대중국 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함.

▲俞弘濬(80년 人文大卒·영남대 교수) = 최근 경남 통영에서 한국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신문 경영자 간담회에서 「문화유산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특강함.

▲崔銀玲(82년 音大卒·첼리스트) = 최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첼로독주회를 가짐.

▲李正烈(82년 醫大卒·모교 교수) = 최근 하와이에서 열린 세계소아심장과과학회에 참석, 논문 「양방향성 체정맥-폐동맥 단락술 후 혈액학 및 중심폐동맥 크기의 변화」를 발표함.

▲金秀芝(85년 音大卒·피아니스트) = 최근 세종문화회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崔英美(87년 人文大卒·시인) = 최근 유럽미술기행문 「시대의 우울」(창작과 비평사刊)을 출간함.

▲李淑美(88년 音大卒·피아니스트) = 지난 6월 12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李太教(4기 AMP·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 = 최근 모교 호암생활관에서 「부동산 신탁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徐清源(26기 AMP·6·3동지회장) =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6·3학생운동 3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함.

▲金文煥(2기 ACAD·한국문화정책개발원장) = 최근 독일문화원과 공동으로 「모두를 위한, 모두로부터의 문화」라는 주제로 한·독문화정책 세미나를 개최함.

▲洪世基(26기 ACAD·한국전기안전공사 이사장) = 최근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상호 정보교류 및 기술교류 확대를 위한 기술협력 약정을 체결함.

(정리=盧志元기자)



華 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고석헌 군(91년 社會大卒)·김선경 양=7월 19일 15시.

*박상훈 군(97년 自然大卒)·김애련 양=8월 2일 14시.

*박상길 군(96년 法大卒)·이수연 양=8월 24일 14시.

*오석태 군(90년 社會大卒)·강태영 양=8월 30일 14시.

*정상진 군(95년 社會大卒)·박성주 양=8월 30일 15시30분.



金殷泳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선진국 진입위해 독창적 과학기술이 필요합니다” 정부 각 부처별 정책 조정...예산 낭비 막아야

지난 6월 5일 제4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에 임명된 金殷泳(61년 工大卒)동문을 만나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와 계획하고 있는 정책사업을 들어보았다.

『요즈음 경기침체로 인해 걱정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기침체를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등三高논리로 이해하고자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과학기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문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학기술 없이는 선진국 진입은 커녕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발전에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취임 소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행정부문에 자신 있는 철학이 있으나 이제는 국가 전체를 놓고 대학·기업연구소의 과학기술 정책도 다루자니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첫번째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종합조정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더불어 과학기술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통상산업부·교육부·정보통신부·과기처 등 거의 모든 부처에서 과학기술의 행정과 예산을 다루고 있어 정책의

중복과 예산의 낭비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장관회의가 설치돼 있지만 실제적인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정부출연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과 기업의 연구능력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으나 KIST를 비롯한 정부출연기관들이 고유 연구영역을 확보하지 못해 침체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헬름 홀츠연구소, 막스 플랑크연구소, 일본의 이화학연구소 등과 같이 국가연구소(National Lab)의 연구영역을 대학이나 기업연구소와 차별화함으로써 필요없는 경쟁력과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자문과제는.

『현재 준비중인 과제는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발전전략입니다. 선진국의 과학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방기술로써 1만불 시대까지 왔으나 3만불 이상의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창의적, 독창적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창의적인 과학기술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기술혁신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연계시켜야만 제2, 제3의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기처가 마련한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이 잘 수행되도록 측면 지원을 준비함과 더불어 차기 정부를 위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청사진을 제작, 과학기술정책이 연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입니다』

—자문회의 운영 방안은.

『자문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현 정부의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지만 자문회의는 이와 관계없이 현 정부가 해야 할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자문과제를 발굴하고 심층연구·분석하여 국가경영과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인은 물론 과학기술자들에게 자문회의존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폭넓은 지해를 모을 계획입니다』

—현장 연구원으로서의 연구실적도 대단하시던데요.

『66년 독일 다름슈타트공대에서 고분자학을 전공하고 돌아와 지금까지 30년동안을 KIST에 재직하면서 신부전증 환자 치료용 인공신장투석기,

심장수술시 심장과 허파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인공심폐기 등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생체재료학회 회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평소의 생활철학은.

『저의 큰딸(김윤경·94년 自然大卒·일리노이대학 박사과정), 큰아들(김영준·97년 工大卒·(주)메디슨 재직), 막내아들(김영민·工大 3년 재학) 모두 서울대 동문입니다. 평소 저는 이들에게 어디서든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문에게 한 말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정부는 물론 정치인이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에 투자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모방기술을 그만하고 창의적 기술개발과 기초연구에 중점을 두고 대학교수들도 학생들이 창의성을 갖도록 유도해 미래지향적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매일아침 4km의 조깅과 평행봉 운동을 통해 건강을 다지는 金동문은 두 달에 한번씩 모이는 화학공학과동창회에 부인 金敬惠여사와 함께 참석, 동문들과의 친목도모에도 열성을 보이고 있다.

(變)

디지털산업의 선두주자

매출액의 15%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술경영」

「노래방 기기」 개발로 중소기업 대상 받아



⑥ (주)건인

『우리의 목표는 소니(SONY)입니다. 아날로그 가전제품의 선두주자인 소니를 디지털 가전제품으로 따라잡겠습니다』

최근 불황으로 여기저기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똑같은 환경에서 효율·저비용 경영으로 승승장구하는 기업이 있다. 卞大圭(83년工大卒)사장과 그의 석·박사동기 및 후배인 金種日, 崔漢弘, 李鎔勳, 姜中庸, 李鎭哲, 金綴執등문 이렇게 6명의 동문이 창업한 (주)건인. 전직원 120명의 45%인 54명이 연구원이고 매출액의 15%를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는 업체이다. 창업초기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50%였고 최근까지 20%이던 것이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낮아진 수치이다.

(주)건인은 주문형 반도체 칩을 이용한 비디오 CD반주기 등 첨단 가전제품을 주축으로 견실하게 성장한 벤처기업이다. 「건인(建人)」이라는 회사명은 卞

사장 출신학과와 관련된 제어계측(CONTrol and INstrumentation)의 영자 첫부분을 따서 만들었다. 지금은 가락동에 6층 사옥을 갖고 있으며 수원에 2백40평 규모의 공장도 갖추고 있으나 창업기에는 봉천동의 30여평짜리 임대 사무실에서 「건인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했다.

위성방송수신기 유럽 진출

6명의 동문이 창업멤버로서 의기투합해 뛰어난 기술력과 의욕만을 믿고 만든 첫 제품은 특수카메라를 이용한 정밀측정기기. 부품을 구하러 대만의 전자상가까지 뒤지고 몇달 동안 밤잠을 설치가며 만든 이 제품은, 남들이 모방하기 힘든 어려운 기술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협소해 팔리지가 않았다.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는 시장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린 실패를 통해 경험한 卞사장은 경영에 염두를 두며 컴퓨터와 가전제품을 결합하는 멀티미디어의 제작을 기치로 내걸고 디지털 영상 가요반주시스템 개발에 주력했다.

이렇게 하여 탄생한 제품이 「휴맥스」. 이 기기는 노래방시장에 일대 돌풍을 몰고 왔다. 92년 당시 대당 3~5천만원에 수입하던 기계를 국산화하여 대당 55만원에 내놓은 것이다. 또한 기존의



卞大圭사장

CD 한 장에 저장할 수 있는 노래는 20여곡에 불과했으나 「휴맥스」는 당시 무려 2578곡을 한 장에 담을 수 있었고 최대 2만곡까지 저장이 가능해 신곡 추가시 가정이나 업소에서 CD만 교환하면 됐다. 그리하여 건인은 국내 노래방 기기 시장의 90%를 장악할 수 있었고 94년 중소기업 대상도 받았다.

이로써 오늘날의 성장기반을 마련한 卞사장은 95년 하반기부터 연간 매출액 1백20억원의 20%가 넘는 25억원을 투자해 디지털 위성방송수신기 「세트톱박스」를 개발, 유럽시장을 공략하여 96년 독일의 쾰릭시스사와 향후 2년 6개월간 3억달러 규모의 공급계약을 맺었다. 디지털 「세트톱박스」는 단순한 수신 기능만을 가진 일반 위성방송수신기와 달리 주문형 비디오(VOD), 인터넷접속, 동화상 음성 등 디지털 정보 교환기능을 갖춘 최첨단 위성방송수신기로서 2천년에는 3천만대, 즉 1백20억달러 규모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은 위성방송수신기 보급 대수면에서 미국에 이어 한국이 세계 2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유망시장으로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주)건인이 유럽 대륙에 디지털 위성방송수신기를 보급하게 됐다.

무선호출기 사업도 한 몫

卞사장은 「국내 대기업은 물론 세계 첨단을 달리는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과감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이 말을 증명하듯이 (주)건인은 지난 5월에 R&D와 마케팅 활동을 위해 유럽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경쟁력은 디지털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예상하는 卞사장은 이제 디지털 기술과 이를 응용한 첨단기기로 승부를 걸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 무선호출기 제조업체인 파텔을 인수, 자회사인 (주)건인텔레콤으로 변신시켜 무선호출기 사업에 진출했고 현재 개인휴대통신(PCS) 단말기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媛)

동 문 현 황

金 種 日	83년工大卒	연구소 소장
崔 漢 弘	85년工大卒	연구소 부장
朴 澈	87년 社會大卒	기획관리팀 차장
李 鎔 勳	87년工大卒	북아일랜드지사 차장
金 鐘 旭	88년工大卒	연구소 차장
姜 中 庸	88년工大卒	연구소 과장
文 成 培	88년工大卒	연구소 과장
李 鎭 哲	89년工大卒	연구소 과장
金 綿 執	90년工大卒	연구소 과장
金 鎭 郁	90년 社會大卒	기획관리팀 대리
金 鍾 元	91년工大卒	연구소 연구원
張 弼 勝	96년工大卒	연구소 연구원



디지털 위성방송용 수신기 세트톱박스.

모임 採訪

녹색연합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세상 만들기

「녹색연합」은 좁은 의미의 환경운동을 넘어 대안(代案)운동으로서의 녹색생명운동을 펼치고 우리 역사와 풍토에 걸맞는 운동방법을 전개하기 위해 91년 1월 5일에 창립됐다.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는 盧隆熙(52년 法大卒·모교 명예교수)동문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 보았다.

— 환경운동에 참여한 계기는.

『진정한 「삶의 질」이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되찾아 향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사회에서는 경제위기의 제1차적인 희생물이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자들을 다그쳐내고 국민들을 자각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민간활동」입니다. 건강한 문제 제기와 정열적인 실천이 역사를 바꿔 왔다고 믿기에 민간환경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설립취지와 연혁은.

『녹색연합은 배달민족의 유일한 싹터인 금수강산을 오염으로부터 되찾고, 녹색생명운동을 널리 펼쳐 궁극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배달환경클럽」으로 시작, 94년 4월 「푸른 한반도 되찾기 시민의 모임」과 합쳐 「배달녹색연합」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다시 「녹색연합」으로 개칭,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8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산하기구로 연구소와 출판사가 있습니다』

—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는.

『주요활동으로는 한반도 생태공동체 실현을 위해 남북환경전문가회의를 개최했으며, 백두대간 환경탐사, 깃대종 살리기 운동,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 저지운동을 비롯해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방안으로 습지보존 국제세미나, 동북아 대기환경네트워크 워크숍, 반핵아시아포



盧隆熙공동대표

럼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지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발행과 더불어 녹색소비자 지침서, 한국환경보고서, 그린코리아 리포트(영문) 등의 출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환경운동은 국민들이 소비의 주체이기에 일반 국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녹색연합도 이러한 명제를 중심에 두고 환경운동을 해나갈 것이며, 긴급한 사안에 끌려다니는 활동보다는 계획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다만 핵폐기물 북한반입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할 것이며, 남북환경협력사업, 생태보존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이제는 정말 말로만 환경을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양식을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경제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환경의 논리로 재평가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생존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편한 것, 빠른 것에 길들여져 있는 생활습관을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들이 언젠가는 되돌아가 그 품에 안겨야 할 자연에 더 이상의 너그러움을 기대하면 안됩니다』(媛)

추억의窓

청주교대 교수
趙璇衡(63년 師大卒)



관악캠퍼스로 옮긴 4월 학생혁명기념탑.(원내 필자)

베토벤 「운명」 교향곡 울려오면
4·19 시위열기 다시금 느껴져

1960년 4월 19일은 화요일로 1교시가 공강(空講)이라, 학교 음악감상실에서 베토벤의 「운명」을 감상하고 있었다. 「파과광」하는 파열음은 운명의 여신의 노크런가? 2교시가 시작되어 교실로 향하려 하는데,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데모를 하러 나가야 한다고 친구들에게 떠밀려 교문밖으로 나갔다.

사범대학이 용두동에 있을 때인데, 시위대는 동대문을 지나고 을지로를 거쳐서 시청앞에 모여 정열을 가다듬은 다음, 광화문 사거리를 거쳐 중앙청 앞을 지나 적선동을 통과하여 진명여고 앞에까지 다다랐다. 우리 사범대학 시위대 앞에는 동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었는데, 졸업후 그 학교에서 교사를 하게 된 것도 아이러니칼한 인연이었다.

저지하는 경찰들과 대치상태에서 밀고 밀리는 상황이 연속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가 시작되었다. 총성이 나면 학생들이 아스팔트 길바닥에 엎드리기도 하고, 길가 골목으로 피하기도 하는 여러 번의 과정에서 총소리가 더욱 격렬해졌고 부상당한 학생들이 속출하였다.

지금 기억할 순 없지만 어느 집에 머물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 다음날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 부상자와 사망자가 몇 명이라고 발표가 나오고, 이어서 교복을 입은 학생, 가방을 든 학생 및 신

발이 지저분한 학생을 잡는다는데, 가방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어찌다 교복을 입었으니 잡히기에 적극적인 상황이었다. 10시쯤 숙식을 제공받은 집을 나와 옛 서울고등학교 맞은편의 천주교에 관계하는 건물내에 숨어서 오후 1시까지 시간을 보냈다. 걸어서 2시반경 집에 돌아왔더니, 엿저녁에 집에 안들어와서 학교에 보고했었으며, 지도교수님이 다녀 가셨단다. 1주일후 학교에 나갔는데 요새말로 찍힌 바 되었고 걱정도 많이 들었다.

중학교때부터 관주도형의 휴전반대 시위에 학생들을 동원했으며, 한일국교(國交)반대, 군사정권 반대 등으로 점철되었고, 10여년 전 한참 학생시위가 심할 때, 현재 근무하는 학교의 교문인 철문을 사이에 두고 전경부대와 맞서서 돌 던지고 최루탄을 쏘는 대치상태가 그칠 줄 몰랐다. 그때 학생대표였던 양군에게 「너만 대표로 교문밖에 나가서 잡혀가라」고 교문 밖으로 떠밀려 하니 질겁을 하고 한사코 혼자서는 안 나간다는 것이다. 그 대표와 협상하여 30여분간 전경과 대치하다가 해산한 일이 있다. 지금도 운명의 교향곡이 「파과광」하고 울려오면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옛 추억을 갖고 사는데, 요즈음 계속되는 어지러운 데모는 언제 끝나나?

모교소식

98학년도부터 계약교수제 도입 여성·타대학 출신 채용 확대

모교는 지난 19일 세계일류 대학 대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교수채용에 경쟁체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수 계약제를 새로 도입하고 여성·타대학 출신에 문호를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규 교수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채용되는 교수는 정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일정 계약기간 동안 총장이 임용하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교육 및 연구능력을 검증받게 되며, 조교수·

부교수 4년, 전임강사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연구 및 강의업적 평가를 받아 재계약할 수 없다면 자동 해임된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여성과 타교 출신 교수 채용이 지나치게 적어 학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들의 채용비율을 높이도록 각 단과대에 권고키로 하고, 빠른 시일내에 최저채용비율을 결정키로 했다. 현재 모교 교수 1천4백41명 중 타대학 학부출신은 4.9%인 70명, 여성은 6.5%인 94명에 불과하다.

공과대학

「자랑스러운 공대인賞」 시상

공과대학(학장 李長茂)은 지난 27일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자랑스러운 공대인賞」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해외활동부문에 미국 사우스다코타대학

鐵山공대학장인 韓國男(61년 광산공학과卒)등문, 국내활동부문에 張永壽(59년 건축공학과卒)대우건설 회장, 金忠基(65년 전기공학과卒)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원장이 각각 수

상했다.

공대는 93년부터 매년 산업 기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하거나 학문적 성취가 뛰어나 모교 명예를 드높인 국내외 동문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독문·불문·서문과 대학지원 해외연수

인문대 외국어계열 독문과, 불문과, 서문과 등 3개 학과 학생들이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 대학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올 예정이다.

대학 본부가 한 과에 1천5백만원씩을 지원하는 이번 연수를 통해 독문과는 독일 본대학, 불문과는 프랑스 정부기관인 CIES, 서문과는 멕시코 Guadalupe대학에서 어학교육을 받게 되며 현장에서의 문화탐방을 하게 된다.

이번 연수에는 신청자가 많이 몰려 한 과당 10여명이 참여하게 되며,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중문·노문과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원봉사」 정규과목 학점제 도입키로

모교는 지난 16일 학생들을 지성과 공동체적 의식을 겸비한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21세기 공동체 - 함께 여는 세상」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학부생 3백명의 자원봉사신청을 받아 아동복지시설, 환경단체, 양로원 등에서 한 학기동안 봉사활동을 펼치도록 했다.

이어 내년에는 봉사활동센터를 설립, 학생들의 참여폭을 넓히고 99학년도에는 정규교과목으로 채택해 학점을 부여키로 했다.

미술대학

학사·석사과정 졸업미전 열어



미술대학(학장 尹明老)은 지난 6월 19일 鮮于仲皓총장, 崔松和부총장, 洪承五대학원장을 비롯해 李信子미대동창회장, 權純亨명예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미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미대 구내와 박물관 현대미술전시실에서 27일까지 계속된 이번 졸업미전은 학사과정 1백12명과 석사과정 18명의 작품이 전시됐다.

타대 학생교류 규정 학점 상호 인정키로

모교는 지난 5월 31일 「국내(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했다.

이 규정에는 학칙 제61조 2항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모교와 국내 타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점 인정 등의 사항을 명시해 놓았다. (變)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 추천

— 인격·덕망있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분 —

서울대인의 영예이며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의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23만 동문중에서 선정되는 서울대인은 우리들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매년 개교 기념일에 발표되는 수상자는 모교에서 학위(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한 분이거나 모교에 장기간 봉직하신 분(가급적 60세 이상인 분)으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이 대상이 됩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 각계 동문들께서 알맞는 후보인물을 추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7월말까지 모교 기획실(전화 880-5081, 5086)로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소개하는 글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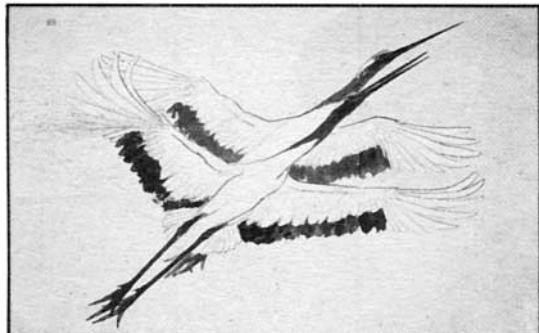
선배님 아세요?

— 大學新聞 「대학살롱」중에서 —

과외왕국과 관악친구들

◇나라의 사교육비가 10조원에 육박한다는데, 국가의 경제를 걱정하다 불현듯 아르바이트로 삼고 있는 과외 몇 건의 액수를 상기한 살롱자.

생각은 「경제의 파수꾼」인데 실재는 「과외열풍의 수혜자」임을 떠올리며 부끄러운 괴리감에 빠지기도. 행여 이런 바람이 관악친구들을 자본의 논리에 빠진 「녹두의 소비자」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봄직도.



6월호를 읽고

同窓會報를 會誌로 바꾸었으면...



월 1회 발행되는 회보가 232호를 기록, 창간한 지 20년이 넘었다. 동창회보를 회지로 발행했다면 서울대인의 성장을 알리는 2백30여권의 책이 서재의 한 공간을 장식하고 있을 것이다.

회보는 아무래도 잡지에 비해 보관성, 보존성이 떨어지고 품위가 없다고나 할까. 간혹 회보가 집에 배달되어 일반 신문과 함께 섞여 있다가 모르는 사이에 폐지가 되곤 한다. 회보를 만든 정성을 생각하면 허전한 마음이 든다.

회보를 만드는 비용과 정력을 회지 제작에 쏟는다면 훌륭한 동창회지가 될 것이라 믿는다. 회보를 회지로 바꾸는데 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미래를 향해 발전된 변화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다. 辛大用(57년 農大卒)한국다문화연구회장

동창회 신용카드 적극적인 홍보를



그동안 동창회의 여러 가지 훌륭한 업적이 많다.

특히 국민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동문들에게 모교 로고가 새겨진 「서울대동창회 국민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서울대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카드 이용료 일부가 동창회 수익금으로 돌아오니 이 얼마나 좋은 사업인가!

가능한 한 많은 동문들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홍보해 주길 바라고 우리 동문들도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참여로 동창회 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金星銖(74년 齒大卒)김성수치과의원장



축복 받은 삶의 여유

몇 주 전 주말에는, 늘 가던 종착지에서 좀 더 남동쪽으로 나아갔다. 경이롭게도 길옆과 언덕 등성이에겐 분홍 옷감을 펼쳐 놓은 듯 온통 붉어져 있었다.

어릴적 꽃내음 흠뻑 맡으며

5월에, 산골짜기 국도를 따라 자동차로 달리는 나들이는 아카시아 향기 속으로의 질주였다. 이상하게도 실제의 향기는 자동차 안에까지 도달하지 못했는데, 어렸을 적 향기를 맡으면서 꽃을 먹던 때의 아카시아 향기를 그대로 느꼈다. 동행했던 두 친구들을 위해, 도중에 한 옛 서원에 들렀다. 포장되지 않은 길을 따라 야트막한 산을 하나 넘어서 펼쳐진 풍경, 바위와 나무로 덮인 거의 수직의 우뚝한 산이 마치 병풍인 듯 둘러 있고, 그 아래에는 유유히 흐르는 맑은 강물 위에 산 그림자가 출렁였다.

제법 넓은 모래밭, 맑은 하늘, 전깃줄 하나도 걸려있지 않은 한 폭의 동양화

가 이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 고색이 창연한 그러나 좀 낡아보이는 굳게 닫힌 옛 서원의 큰 문 앞에 펼쳐진 잔디밭에서 바라보는 이 풍경에서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하고 있는 한 친구와, 늘 서울에서 맴돌며 정신없이 오가던 또 다른 친구는, 박물관의 고화에서나 혹은, 한국전쟁 이전, 우리가 아주 어렸을 적에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면 마주칠 수 있었던 우리 강산의 모습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척 신기한 듯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금년 들어 거의 격주로 주말 나들이를 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4시간 정도 운전하면 되는 곳에 거처를 갖게 되어 바쁜 주중의 학교 일들을 마친 뒤에는 강의 준비 자료들, 처리해야 할 잡다한 문서들, 그리고 특별히 필요한 살림 용품들을 꾸러 가지고 집을 떠난다.

서울을 떠나 그 시원하고 깨끗한 산들을 바라보며 운전하고 나면, 꼭 필요한 가구와 물건들만 배치되어 쾌적하고



徐京善(64년 音大卒)한양대 교수

넉넉한 공간의 거처에 도착하게 되고, 전화나 뜻밖의 방문 등의 아무런 방해 없이 주말을 지낼 생각을 하면서 가볍게 들뜬 마음으로 나들이 준비를 한다. 서울에 태어나서 잠시동안의 유학시기를 뺀 온통의 삶과 일들을 서울에서 가져왔던 나에게는 얼마나 꿈같은 일상생활의 변화인지!

항상 설레는 주말 나들이

이제 한여름으로 접어들면 무성한 나뭇잎의 짙은 초록의 더욱 깊숙한 산을 바라보며 나의 주말 나들이도 더욱 편안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또한 한겨울에 기차로 여행하며 즐길 흰 눈에 덮인 산들을 상상하면서 나의 마음은 더욱 설렌다. 축복 받은 삶의 여유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히 생각할 것이다.

자국상품 자국잡지에 광고해야

잡지사를 시작한 지 어느새 2년이 되어온다. 책 읽기를, 특히 잡지보기를 싫어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생활교양지 HIM을 창간한 지 2년이 되는 셈이다. 내가 남성지를 창간할 즈음 총 4권의 남성지가 동시에 창간되었다. 사람의 생각이란 거의 비슷비슷한 것인지 이제 우리나라 남성도 생활정보지를 필요로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발행인이 4명이나 된다는 말이었다. 한데 그 중 2개가 누적되는 적자를 이기지 못하여 폐간을 하고 이제 두 가지만 남았다. 하나는 미국 유수의 잡지와 판권계약을 한 라이선스 잡지이고 하나는 우리 고유 상표인 내가 만드는 HIM이다.

수입품 매장 늘어만 가고

라이선스 잡지가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출판시장의 개방이 있기 4년 전 일이었다. 프랑스의 패션전문 여성지 2개가 자국의 제호로 국내에서 간행되자 그들은 자국의 상품광고를 대량으로 신기 시작했다. 화장품과 패션광으로 대별되는 이들 외국 상품 광고는 사진이나 레이아웃 면에서 국내 상품의

광고질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시각적으로 완성도 높은 비주얼을 보여주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백화점마다 수입상품 매장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결국은 백화점 1층을 모두 그들 외국상품판매업소가 차지하는 기현상을 낳게 되었다.

라이선스 잡지에는 라이선스 브랜드 상품 광고가 주종을 이룬다. 그들은 자국의 잡지 매체를 먼저 한국에 심어 놓고 그들의 상품을 팔기 위해 상호 협조 관계를 이어간다. 외국 상품 광고주들은 잡지 판매 부수를 고려하기보다는 라이선스 잡지에 광고 게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라이선스 잡지는 그만큼 인지도가 높다는 편견에 의한 결정이다.

그렇다면 우리 고유의 잡지는 어떠한가. 이어지는 불황 속에서 광고주들은 광고비를 투자라 생각하지 않고 경비로 생각하여 광고를 줄이는 데 열중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잡지의 단골 광고주인 국내광고가 줄어들어 잡지사는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결국 국내 상품은 회생의 기회를 잃



월간지 HIM발행인

고 판매부진의 늪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 상품 광고주들 또한 외국잡지를 선호하여 라이선스 잡지의 현란한 광고 속에 비주얼이 떨어지는 우리 상품 광고를 넣으려고 한다. 잡지의 판매부수나 독자들의 연령층을 분석하여 상품의 소비계층에 맞는 잡지에 광고를 할 때 그 광고효과를 볼 수 있다.

판매부진 늪에서 벗어나자

일본의 경우 외국잡지가 잠목되어도 결국 자국 매체를 이기지 못하는 선례를 남겼다. 이는 자국의 상품홍보를 자국의 잡지에 실어 상호 협조관계를 유지해 온 결과이다. 이제 우리도 우리 매체를 살리고 우리 상품을 살리기 위한 매체와 상품의 협조 공존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李鎬淳동문가족

「易地思之」 마음으로 일군 허브나라

李鎬淳(68년 工大卒)동문은 삼성그룹 중역으로 근무하다 지난 94년 강원도 평창에 「허브나라」를 열었다. 숨겨진 일상 속에서도 「나중에 꼭 시골에 내려가 흠뻑 냄새를 맡으며 여유를 즐기는 생활을 해야겠다」고 항상 다짐했다는 李동문. 그가 다른 이들과 다른 점은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인생노트〉(유달영著)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던 李동문은 농촌생활에 꿈을 가졌으나 『똥지게 지러 대학을 가느냐?』는 부모님의 반대를 이기지 못해 공대에 입학했다. 하지만 농사에 대한 미련은 어쩔 수 없어 농대를 자주 들락거리고, 농사관련 강의를 수강하기도 했다. 잦은 농대 출입은 농대를 다니고 있던 李斗伊(70년 農大卒) 동문을 평생의 반려자로 만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결혼하면서 두 동문은 「아이들이 웬만큼 크면 농촌에서 살자」고 약속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아들 昇澤군은 뉴욕대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딸 智仁(96년 美大卒)양도 작품활동을 시작해 약속을 지킬 시간이 됐다. 퇴직후에 여생을 보내는 요양 생활이 아닌 한, 일할 힘이 있을 때 내려가고 싶었다. 李동문은 대기업 중역으로, 부인

은 실내 조경연구소 「서원」을 운영하고 있던 터라 사회적으로 각자 남부럽지 않은 수준이었지만 오랜 꿈을 위해선 포기하기가 아깝지 않았다.

이미 도시생활에 익숙해져버린 몸이라 「허브나라」를 세우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지만 땀흘리며 흠내음을 맡는 만큼 땅은 로즈마리, 스위트 배질, 라벤더 등 갖가지 허브향기를 날려 주었다.

허브를 위해서는 벌레하나 잡초하나도 그냥 두지 않았으나 자녀에게는 「능력에 맞추어 스스로 자라도록」 교육했다는 李동문은 자식농사가 허브농장보다 더 성공한 것 같다고 웃으며 말한다.

한편 李鎬淳동문의 누나 李貞德(59년 家政大卒·동국대교수)동문과 동생 李鎬俊(72년 農大卒·농협중앙회 이천지점장)동문 그리고 처남 李相義(69년 工大卒·대한항공 이사)동문이 또 하나의 서울대 가족을 이루고 있다.

李동문은 선대로부터 내려온 가훈 「易地思之」에 따라 자신들이 돈을 위해 「허브나라」를 만든 것이 아닌 것처럼 이곳을 찾는 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허브향기와 함께 잠시의 여유를 주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 (元)



좌로부터 智仁양, 昇澤군, 李鎬淳동문, 李斗伊동문.



宋壽男 단국대 무용과 교수〈58년 師大卒〉

갑작스런 운동보다 꾸준한 몸풀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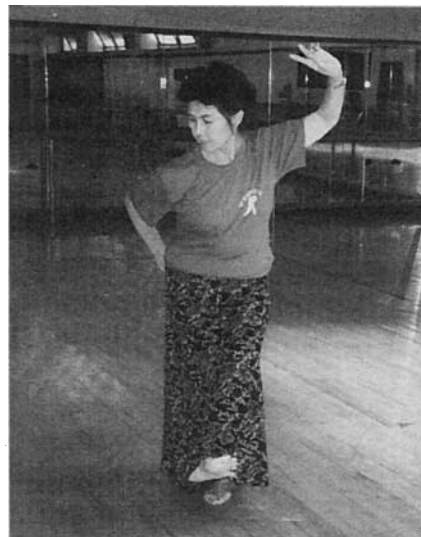
건강법에 관한 원고청탁을 받았지만 나에게 그리 특별한 「비법」이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환갑이 넘어서도 별 지장 없이 학생을 가르치고 공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무용으로 단련된 몸가짐과 아침에 일어나서 내 나름대로 하는 체조 덕분이 아닌가 한다.

나는 우선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한다. 젊을 땐 매일 아침 2~4km씩 조깅하며 체력을 향상시켰지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인 듯 하다. 대신 나는 네 살때부터 지금까지 무용을 해 오면서 몸에 밴 가벼운 아침체조를 통해 몸을 풀고 있다. 체조는 기상할 때 시작된다. 갑자기 몸을 일으키지 않고 워밍업을 하며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다.

몸은 리듬을 타고 움직여야

눈을 뜨면 우선 손목과 발목을 좌우 전후로 돌리고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한다. 다음 몸을 일으켜 앉고 다리를 곧게 한 상태에서 상체를 좌우로 번갈아 천천히 돌린다. 다음 두 팔을 곧게 펴고 손에 공을 잡고 있듯이 좌우로 튕다. 여기까지 끝나면 정원으로 나간다. 벽을 등지고 서서 발을 적당히 벌린 후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 벽에 양손을 발을 벌린만큼 벌려 짚는다. 상체를 180° 돌린 셈이 된다. 다음 목운동을 한다. 그리고 허리를 돌린다. 주의할 점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팔을 주로 앞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그만큼 뒤에서 움직여 줘야 몸을 균형있게 풀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나이가 들어 관절이 뻣뻣해져 있으므로 자주 문질러 주고 있다. 팔은 다리에 비해 덜 사용해 약해지는 것 같아 가벼운 아령을 들고 단련을 하기도 한다.

위에서 말한 운동순서는 단지 나의 몸에 맞는 것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 맞는 가벼운 운동이나 체조를 매일하여 몸을 적당히 풀어 주는 것이지



날을 잡아 갑작스럽게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몸을 억지로 눌러선 안 된다. 몸은 리듬을 타서 흥겹게 움직여야 무리가 오지 않는다.

근면한 생활습관 필요하다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루 4시간쯤 잔다. 8시간쯤 자야 정상이라고들 하지만 나는 잠은 잘수록 느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남들은 60년을 살았지만 나는 75년을 산 것이나 다름없어 뿌듯함을 느끼기도 한다. 부지런해야 건강하다. 해외공연을 2백여회 나가면서 본 서양인들은 참으로 근면했다. 겉으로 보기엔 자주 놀러 다니는 것 같아도 그것은 일을 마친 후 철저히 즐기는 자기사랑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다.

마지막으로 몸이 건강하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하면서 실천은 어려운 사실을 전하고 싶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그만큼 위할 것이다. 남을 위하는 사람은 항상 정신이 깨어 있으며 느슨해지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건강해 진다고 믿는다.

문화
단신

新刊

■ 품질 환경 경영 혁신
— 劉永俊 著

미래경
영기술컨
설팅 대
표인 劉
永俊 (73
년 農大
卒) 동 문
이 경영

혁신 체제 구축에 주안점을 두
고 그동안의 연구결과와 자료
를 모아 한 권의 책을 펴냈다.

劉동문은 오랜 기간동안 기
업체에서의 근무경험과 학문적
인 연구 그리고 최근의 ISO
9000과 ISO 14000분야에서의 심
사·교육 및 지도 활동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
리 실정에 맞게 나아갈 길을
밝혀 놓았다. <미래경영기술컨
설팅刊·값 28,000원>

■ 한반도 군비통제
— 宋大晟 著

공군
준장으로
에 편 한
宋大晟
(73년 文
理大卒·
세종연구
소 정책

연구실장) 동문이 국방안보분야
에 봉직한 실무자로서, 국제정
치학도로서 한반도 군비통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난 10여
년간 발표했던 글과 더불어 한
반도 평화정착과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남북한이 통일되기
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소의 경

험과 교훈을 정리했다.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는
군비통제의 기본 목표와 방안,
전제조건, 4가지 유형 등을 다
루고 있다. <신태양사刊·값 23,
000원>

■ 금융마케팅전략론
— 趙泰玄 著

「대 한
상사중재
원」 중재
인 으 로
활약하고
있는 趙
泰玄 (83
년 大學

院卒·외환은행 무역센터지점
차장) 동문이 금융시장의 개방
화·국제화 등 열린 경쟁의 시
대적 상황에서 국내 금융기관
들이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전략
과 선진 외국금융기관의 전략
사례를 담았다.

趙동문은 그동안 발표한 금
융마케팅 관련 자료와 저서를
참조, 금융마케팅에 대한 인식
과 전략방향의 모색을 통한 경
쟁력강화 및 마케팅 관리자의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삼영사
刊·값 20,000원>

公演

■ 이윤주피아노독주회
— 7월 28일 예술의 전당

아리조나대학에서 석사학위
를 받고 현재 워싱턴대학에서
박사과정 준비중인 이윤주(93
년 音大卒) 동문이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독주회
를 열고 바흐, 베토벤, 쇼팽, 프
로코피에프의 작품을 선보인
다.

(정리=安興變기자)



한국오행벌침연구회 金棟鉉회장

전통 오행침법과 체질사상의학 접목
부작용 없고 신경통 등에 탁월한 효과

『부작용이 거의 없고 신경
통, 근육통, 디스크, 관절염,
당뇨, 정력부족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시장 어귀에 있는 약장사
의 말이 아니다.

졸업후 증권회사를 다니며
생긴 허리통증 때문에 92년
부터 침술서적을 뒤적이며
지압, 뜸 등을 독학으로 배우
다 벌침에 빠져들었다는 金
棟鉉동문(85년 社會大卒)은
자연민간요법인 벌침의 세계
에선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
이다.

사당동에 자리한 한국오행
벌침연구회에는 매일 1백여
명의 회원이 북적거리고 옥
상에 키우는 20여만 마리의
벌떼가 「웅웅」소리를 내고 있
다.

『동양의학에서 첫째는 침,
둘째는 뜸, 셋째는 약이라고
했는데 벌침은 이 세가지의
효과가 동시에 발휘되는 신
비한 민간자연요법입니다』

직접 체험했기에 벌침의
효과에 대해 확신이 있는 金
동문은 집안의 반대에도 불
구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
자는 각오로 직장을 그만뒀
다. 밤에는 관련서적을 탐독
하고 낮에는 직접 자신의 온
몸에 벌침을 놓아가며 연구
했으며, 중국연변의학원에서
국제침구의사자격증을 받은
후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



金동문(사진 右)이 벌침 시술을 하고 있다.

과 스포츠마사지 자격증 등
관련자격증도 하나하나 취득
했다.

金동문은 단순히 아픈 곳
에 벌침을 놓는 기존의 벌침
법에서 벗어나 손과 발, 경락
(오장육부의 병이 몸거죽에
나타나는 자리)에 침을 놓는
전통적인 오행침법과 체질을
분석한 사상의학을 종합적으
로 구현해 「오행지법」이란 독
특한 기법을 완성했다.

또한 전국에 흩어져 있던
5백여명의 벌침시술사를 결
집, 국내최초로 전국 규모의
관련단체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10여개 도시와
중국, 뉴질랜드 등에도 진출
해 오행벌침을 전파하고 있
다.

『벌침이 아직 믿지 못할 민
간요법으로밖에 인식되지 않
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일
본·중국처럼 정규교육과정
에서 벌침이 인정될 날을 위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벌침만큼 쉽게 배우고 안
전한 시술방법이 없다는 金
동문은 「신비한 오행벌침요
법」이란 책을 저술해 일반인
도 쉽게 벌침을 배울 길을 마
련했으며 조만간 「정통 오행
지압백과」를 펴낼 예정이다.

벌침으로 인해 뒤바뀐 인
생에서 보람을 찾고 있는 金
동문은 현재 장애인과 노인
들에게 무료 봉사를 하고 있
으며 「오행지법」을 세계적인
민간요법으로 발전시키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元)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동문여러분께서 내주신 회비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 및 미술전, 음악회, 회보 발간 등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교와 동창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理事 : 5월 1일 ~ 25일 · 一般 : 4월 29일 ~ 5월 9일〉

회 장 단

▲부회장 馬景錫=1백만원
▲부회장 趙 淳=50만원
▲부회장 金相廈=1백만원
▲부회장 白樂院=1백만원
▲부회장 具平會=1백만원
▲부회장 李達雨=1백만원
▲부회장 鄭元植=1백만원
▲부회장 金善弘=1백만원
▲부회장 鄭喜卿=50만원
▲부회장 申榮均=1백만원
▲부회장 金貞植=1백만원
▲부회장 姜晉求=1백만원
▲부회장 鄭仁奎=1백만원
▲부회장 李宗勳=1백만원
▲부회장 趙南煜=1백만원
▲부회장 張翼龍=1백만원
▲부회장 李漢雄=1백만원
▲부회장 李丙俊=1천달러
▲부회장 李金器=1백만원
▲부회장 尹世榮=1백만원
▲부회장 玄昭煥=30만원
▲부회장 金鍾振=1백만원
▲부회장 朴容晟=1백만원
▲부회장 金基炳=1백만원
▲부회장 崔元榮=1백만원
▲감 사 李基雄=30만원

관 악 회

▲이 사 孫京植=30만원
▲이 사 尹美子=30만원

상 임 이 사

▲楊銀淑 간호대동창회장=20만원
▲朴振煥 농대동창회장=20만원
▲李龍兌 자연대동창회장=20만원
▲李南洙 음대동창회장=20만원
▲李吉女 의대동창회장=20만원
▲魏駿嫻 교대원동창회장=20만원
▲李濟薰 신대원동창회장=20만원

이 사

◇人文大學

▲정동영⑨국회의원

◇社會科學大學

▲김민석⑨국회의원
▲이 철⑧前국회의원
▲이영두⑦동아석재 부사장
▲조현래⑦변호사
▲황주철⑦동일건설 부사장

◇家政大學

▲윤승금⑦서울산업대 교수

◇看護大學

▲엄길순⑦안홍부의과의원

◇經營大學

▲강능원⑦크레디리요네부장
▲김동석⑦한국물렉스 이사
▲박명호⑦포철손익예산팀장
▲하부열⑦삼화섬유 전무
▲한상설⑦경안약품 대표

◇工科大學

▲강 관⑥코오롱유화 사장
▲강수석⑥국방과학研 부장
▲경상현⑥소프트텔시스회장
▲고국원⑥前건우건축사무소
▲고윤석⑥SKC연구소 전무
▲곽정석⑥화신종합건축대표
▲김광교⑥한국DNS(주)대표
▲김규갑⑥협성실업 대표
▲김덕수⑥장천화학 사장
▲김병린⑥미라보건설 대표
▲김생빈⑥동국대 교수
▲김석기⑥대경기계기술대표
▲김세근⑥前서울공고교장
▲김수광⑥이화공업 대표
▲김영수⑥삼우기술단본부장
▲김영웅⑥삼성전기 전무
▲김영휘⑥신문학원 이사장
▲김용환⑦대림산업 부사장
▲김일진⑥영남대 교수
▲김재화⑥前한양개발 상무
▲김정식⑥차치종합건축회장
▲김종찬⑥대양실업 대표
▲김종찬⑦코아무역 대표
▲김창세⑥변리사
▲김창식⑦오공산업(주)회장
▲김태희⑥한국인덕터썸대표
▲김형벽⑥현대중엔진부사장
▲김홍식⑥한일건설 상무
▲김희준⑦대우루마니아이사
▲노창복⑥건설저온냉장대표
▲마규하⑥기아정기 부회장
▲명태현⑥송원기업 대표
▲문동주⑦서울시정개발研
▲민계식⑥현대重 부사장
▲박민태⑦태광화학공업대표

▲박상기②기술본부 본부장
▲박성현⑥서울대 교수
▲박용집⑥성산산업전기회장
▲박의식⑥환경동인 대표
▲박찬섭⑥(주)태영 부사장
▲박창순⑥강신산업 대표
▲변 용⑥원도시건축研소장
▲서상기⑦한국기계研원장
▲서정욱⑦SK텔레콤 사장
▲서진근⑥중앙학원 이사장
▲성기상⑥협성농산 대표
▲성기수⑥KAIST연구소
▲손 욱⑥삼성전관 대표
▲손달식⑥부천세종병원감사
▲송기덕⑦정일ENG 대표
▲송태근⑥소호무역 대표
▲안장훈⑥경동 인니 대표
▲양문현⑥해양섬유 대표
▲여인희⑥오리엔탈종합전자
▲우인성⑥한국피서과학대표
▲유간성⑥종합기술개발공사
▲유봉환⑥송실대 교수
▲유채준⑥대한전선 대표
▲윤재건⑥삼우기술단부회장
▲윤종구⑥선일기업 대표
▲윤충중⑥센트랄서비스산업
▲이공주④초현조경개발회장
▲이광재⑥前원자력研 단장
▲이기평⑦한주기계 부사장
▲이길범⑥유일건축사무소
▲이동한⑥삼보론텐트 대표
▲이동호⑦효성중공업 고문
▲이문형⑥대우전자 대표
▲이상현⑦우영산업 대표
▲이성렬⑥前성균관대부총장
▲이세기⑦포항도금강관대표
▲이영희⑥前서울산업대교수
▲이영희⑥희림종합건축대표
▲이원형⑦뉴영남호텔부사장
▲이주선⑥제우개발 대표
▲이준식⑥KAIST교수
▲이중성⑥한국ENG 부사장
▲이중흥⑥경방기계 대표
▲이충웅⑥서울대 교수
▲이형도⑦삼성전기 사장
▲이환범⑥대영ENG 대표
▲임종구⑥태광실업 고문
▲장동욱⑥해외건설(주)고문
▲장삼진⑥바이엘코리아(주)
▲장철환⑥안성농원 회장
▲장호남⑦KAIST 교수
▲전웅진⑦우진산업 사장
▲정규동⑦삼보정보건설팀
▲정범식⑦호남석유화학상무
▲정병일⑥풍원공업ENG

▲정연철⑦풍국기업 대표
▲정재은⑥조선평명예회장
▲정진택⑥동서교역 회장
▲조사흥⑥두산백화 부회장
▲조수길⑦미쓰이코리아고문
▲진국봉⑥한국이지업 대표
▲진영무⑥대우자동차 상무
▲최강희⑥철도기술協이사장
▲최관영⑥일건종합건축소장
▲최돈웅⑥前국회의원
▲최동일⑥유공가스사장
▲최용일⑦LG정보통신전무
▲최종명⑥한원정밀화학대표
▲한대림⑥서전통상 사장
▲한병록④지산건설상임고문
▲함승호⑦조흥화학공업회장
▲홍영의⑥한진건설 전무
▲황종구⑥한일상사 사장
▲황해근⑥동일기술공사대표

◇農科大學

▲강전유⑥나무종합병원장
▲고광출⑥서울대 교수
▲권오진⑥서해개발 대표
▲김규환⑥前예산농업전문대
▲김원세⑥현대금속(주)회장
▲박래경⑦前농촌진흥청
▲손기성⑥옥전상사 대표
▲손두식⑥경북대 교수
▲심재덕⑥수원시장
▲오세승⑦前경기개발공사
▲윤희진⑦다비육종 대표
▲이달형⑦동신개발 부사장
▲장상태⑥동국제강 회장
▲정운조⑥조영공업 회장
▲최정화⑥서울대 교수
▲한휘연⑥흥진양행 사장
▲허문희④서울대 명예교수
▲이운하⑦前내장산호텔사장
▲조용철④한국농지개발研

◇文理科大學

▲고석윤⑥변호사
▲고흥길⑥신한국당대표특보
▲곽만섭⑥산립청장
▲김규상⑦일진산업 회장
▲김희상⑦
▲노재봉⑦前국회의원
▲박용만⑥서울대 교수
▲박윤배⑦우리자동차판매
▲박희주⑤매일유업 사장
▲서광석⑥前송의여전 교수
▲서재만⑥외국어대 교수
▲유병덕④천록건물개발대표
▲윤병익⑥통일연수원 교수

▲윤재천⑦성보화학 대표
▲은영배⑥세무사
▲이경재⑥국회의원
▲이규일⑥현대문예사 회장
▲이기화⑥서울대 교수
▲이두종⑥(재)양영회이사장
▲이민섭⑥동아갤러리 관장
▲이병상⑥코오롱메라크대표
▲이수정⑥前문화부장관
▲이정실⑥한양대 교수
▲이종규⑥쌍용자동차 사장
▲이준일⑥중앙대 교수
▲정기인⑥한양대 교수
▲조 은⑥동국대 교수
▲진홍순⑦한국방송공사차장
▲하영준⑥前효성금속대표
▲한만년④일조각 사장
▲현승일⑥국민대 총장
▲현영원⑥현대상선상임고문

◇美術大學

▲박노수②예술원 회원
▲전 준⑥서울대 교수
▲정창섭⑥서울대 명예교수

◇法科大學

▲강보현⑦변호사
▲강신원⑦변호사
▲강용구⑥변호사
▲강우영⑥변호사
▲강홍석⑥산업은행 부장
▲고학봉⑥포스코개발사장
▲고현석⑥한국협동조합研
▲곽노준⑦변호사
▲곽영철⑦창원지검차장검사
▲곽정출⑥前국회의원
▲권오윤⑥제양 대표
▲금태환⑦변호사
▲김경철⑥중앙일보광고본부
▲김길영⑥성창기업 부사장
▲김덕영⑥한전 종합조정역
▲김동규⑥대한주택공사사장
▲김병윤⑦두산건설 이사
▲김봉환⑥변호사
▲김상섭⑥동양생명보험전무
▲김상훈⑥銀감독원부원장보
▲김성근⑥변호사
▲김세권⑥변호사
▲김실동⑥삼미기공 대표
▲김영수④변호사
▲김영훈⑦대성그룹 부사장
▲김예환④예일여교 교장
▲김완식⑦변호사
▲김원원⑥삼과꿈출판사대표
▲김응재⑥前대양도료상사

▲김의재⑥변호사
▲김인규⑦변호사
▲김재규③前주한일고교장
▲김재기⑦서울지검부장검사
▲김재해⑥前주택산업연구원
▲김재후⑦前승리기계기술
▲김정득⑥금성 대표
▲김정후⑥강원대 교수
▲김종환⑦변호사
▲김진억⑥변호사
▲김진영⑦부산고법 판사
▲김진우⑥前 憲裁재판관
▲김찬규⑤경희대 교수
▲김창복⑤동방사 사장
▲나종태⑤춘천지법부장판사
▲남상유⑤태웅 대표
▲노상국③유니온전지 대표
▲노형권⑤전국銀연합회사무
▲도태구③변호사
▲명호근⑤쌍용화재해상보험
▲문대탄⑥제주신문논설위원
▲문복주⑦서부지원민사과장
▲문영국⑥관세사무소
▲문형식⑤변호사
▲박경보⑦변호사
▲박길수⑦사조산업 상무
▲박대운⑥충북대 교수
▲박성달⑥체육진흥공이사장
▲박승운⑥법무부 검찰국장
▲박용수⑦부산지법물산지원
▲박우동⑦변호사
▲박원철⑥구로구청장
▲박윤환⑥대구대 총장
▲박준서④대법원 대법관
▲박준서④연세대대학원장
▲박찬주⑦변호사
▲박철근⑤영일화학 대표
▲박철우⑥축협중앙회부회장
▲박태영④前한국전력공사
▲배억만③한일호산 대표
▲변규철⑥LG상사 회장
▲서경석⑦LG투신운용사장
▲서남수⑥태성사 사장
▲성낙천⑥한국공항공단감사
▲소철룡⑦변호사
▲손수익⑥한국경제사회학
▲손영섭⑦변호사
▲송병대⑦신한국당국제국장
▲송언종⑥광주시장
▲송진훈⑥대법원 대법관
▲신성순③중앙일보뉴미디어
▲신연호⑦산업안전관리協
▲안용득⑥법원행정처장
▲안종운⑤한양대 교수
▲안준수③부산은행 이사
▲여동영④변호사
▲오세희⑥한국홈쇼핑 사장
▲오유방③변호사
▲오종남⑦재정경제원과장
▲우재승⑤세계자유민주연맹
▲우창록⑦변호사
▲유기선⑤내과의원장
▲유길선⑥변호사
▲유성근⑦서강대 교수
▲유인의⑥변호사
▲유홍종④현대할부금융대표
▲윤동민⑥대전고검차장검사
▲윤원석③대우중공업 회장
▲윤진수⑦서울대 교수
▲이 서⑥외환銀보천지점장
▲이 흥⑥홍호사
▲이강훈⑥동진정보시스템

▲이건방⑥변호사
▲이광진⑥국민銀호남본부장
▲이동춘③포철 상임감사
▲이순구⑤부산銀경영혁신단
▲이시윤⑥감사원장
▲이윤승⑤의정부지원 판사
▲이인상④선경유통 사장
▲이창구③변호사
▲이천수⑤순천향대 총장
▲이호근⑥재경원 본부국장
▲이홍수⑦호산물산 대표
▲이희영⑦LG화재 고문
▲임두빈⑦변호사
▲임상순⑦변호사
▲임종훈⑦국제사무처심의관
▲장재식⑥국회의원
▲장준호⑦변호사
▲전수일⑥광운대 교수
▲전수철⑦(주)SM 대표
▲전재기⑥변호사
▲정기승⑦변호사
▲정기호④前국회의원
▲조순형④국회의원
▲조왕하⑦동양종합금융사장
▲조지연④신한신용금고사장
▲조충환④한국타이어부사장
▲조해원⑤새마을운동중앙協
▲차원태⑦변호사
▲채태병⑦민사지법 판사
▲천경송⑥대법원 대법관
▲최근선⑤죽장중고교장
▲최만립④대한마이크로전자
▲최명선③대검 차장검사
▲최선호③변호사
▲최세관③한전 상임고문
▲최승희⑦태인산업 대표
▲최운상③경희대 교수
▲최원백⑥반도산업 대표
▲최중현③변호사
▲최희준③국회의원
▲한기선⑥범양상선 회장
▲한영희⑤한국상사 사장
▲한장희⑥태주공업 대표
▲현명관③삼성물산 부회장
▲현천옥⑦변호사
▲홍성만⑦변호사
▲홍진태⑥마포CATV회장
▲황길수⑥변호사
▲황인만③변호사
▲황철수⑥변호사

◇師範大學

▲강규석⑥강릉대 총장
▲곽철규⑦충북대 교수
▲김기곤⑥전주교대 교수
▲김상욱⑥청주교대 교수
▲김연식⑤서울대 교수
▲김영찬⑥포항여고 교장
▲김정완⑦심원고 교장
▲김준문②우리모두복지회장
▲노두호⑤금성고 교장
▲민재익⑥前고려대기획처장
▲박상규⑦마산교육청교육장
▲박수용⑤진주교육청교육장
▲박종원⑦부천고 교장
▲박희숙⑥한국교원대 교수
▲신용래⑥경남 부교육감
▲신철순⑥전북대 교수
▲신현식⑥도곡중 교장
▲어명하③통일연수원 교수
▲오경환⑦경상대 교수
▲유경근⑥서울산업대 교수

▲윤용혁④대성금재 대표
▲이돈영⑤효성重 부사장
▲이봉준③아현중 교장
▲이종욱⑥은곡공고 교장
▲이종원⑦외과의원장
▲이희용④진일특수화학대표
▲장상곤⑤동아청소년교육원
▲장신식④노동부 국장
▲조규삼④前서울사대부고
▲지동소⑥정신여고 교장
▲최승환⑥신관중 교장
▲한함운⑦서울산업대 교수

◇商科大學

▲강석권③보람투신운용고문
▲강수현⑥대동복지 대표
▲강정구⑥태영화학 전무
▲강진우⑥롯데쇼핑 사장
▲강태순⑦(주)백화 상무
▲계준혁⑥뉴서울 사장
▲권영부④세우여행사 사장
▲권혁승⑦한국일보 고문
▲김광진⑥울산투자금융감사
▲김동수③한국기업개발금융
▲김동영③서한 대표
▲김배철⑤건설공업 회장
▲김봉규⑥한국기업리스대표
▲김상규④금성물산 회장
▲김선영⑦토미제화 대표
▲김연조⑥중앙종합금융사장
▲김영석⑥통일원 고문
▲김영수⑥만호제강 대표
▲김영준⑥한일카펫 대표
▲김영찬⑥경안상호신용금고
▲김용기⑥대구창업투자대표
▲김윤택④영창인물공장대표
▲김윤환⑥고려검정 대표
▲김중기⑥성원피혁공업대표
▲김창일⑦안국신용금고감사
▲김충환⑦한국전자 사장
▲김항덕⑤(주)유공 부회장
▲김형만⑥前한국신용금고
▲김형영⑥경남금융경제研
▲나공목⑥코오롱그룹부회장
▲노재승⑥변호사
▲맹진성⑥前신보창업투자
▲문대원⑦코리아제록스대표
▲문성철③영화회계법인고문
▲민병운⑤한국종합기술공사
▲민병태④아세아종합금융
▲박근준⑥대한제당 부회장
▲박민남⑥동아건설 상무
▲박병운③서울경제신문전무
▲박성석⑤한라그룹기획실장
▲박수환⑤부산관광개발사장
▲박영복③우빈 대표
▲박용서⑥삼성경제研사장
▲박정식③동일레나운 사장
▲박종진⑦동양그룹기조실장
▲박태하④송실대 교수
▲박흥기⑦정신문화研 교수
▲박희준⑦삼성전자 대표
▲백구현⑥기초과학기원研
▲서병대⑥동아일렉콤 대표
▲손상모⑦전략경영컨설팅
▲손석주⑥남광ENG 회장
▲손수일⑤산업은행 이사
▲심재석⑥태남석유 대표
▲심정구⑦국회의원
▲안병국⑥선창산업 전무
▲안홍환⑦현대석유화학상무

▲어 준④서경통상 대표
▲오우현⑥축협중앙회부회장
▲오한구⑦前국회의원
▲우찬목⑤前조흥은행장
▲윤대운⑦외환銀대구본부장
▲윤문환⑥한두수산 회장
▲윤영조⑥국민은행 이사
▲윤호중⑥한미통상 부회장
▲음용기④현대종합목재 대표
▲이기준⑤前원기무역 대표
▲이대원⑥삼성항공 부회장
▲이병국⑥(주)대현 부사장
▲이상근⑦신용관리 이사장
▲이승은⑦공인회계사
▲이순학⑥삼성증권 전무
▲이영세⑤대한전자재료대표
▲이용성⑥前은행감독원장
▲이용이⑥(주)영원무역 사장
▲이원기⑤공인회계사
▲이유현⑦영진무역 대표
▲이인구⑥남해상사 대표
▲이일쇄⑥대우건설 대표
▲이종각⑤대한제분 회장
▲이진설⑥안동대 총장
▲이충우⑥백산화학 대표
▲이향철⑤前남해화학 고문
▲이효중⑥범양냉방 부사장
▲임종수⑥롯데물산 상무
▲장석정⑥석유개발공사사장
▲전장원⑥경남기업 부사장
▲전재희⑤대우투자자문대표
▲전정구⑥변호사
▲정재경⑦동영흥산 대표
▲정종득⑥(주)백산 대표
▲정택순⑦NHF무역 감사
▲조덕찬⑦공인회계사
▲조문제⑤무림제지 부회장
▲조태준⑥前다미화장품대표
▲진 건④(주)진이섬유 대표
▲진철평③뉴코리아진흥대표
▲최 철⑤호신콘크리트회장
▲최성식⑥前대구투자금융
▲최종인⑥두산상사 대표
▲추한식⑤마산시민버스대표
▲하진오④제일투자신탁사장
▲한근환④신한종합금융대표
▲허 흥⑥대동은행장
▲허남각⑥삼양통상 회장
▲홍재형⑥KBO 총재
▲황낙주⑥국회의원
▲황병선⑥오현고 교장

◇獸醫科大學

▲김홍욱⑥공안당한의원사장
▲나종국③스피드 라인오토
▲서동일⑤이태원가축병원장
▲양창욱⑥다나기계 대표
▲오창영③서울대공원연구원
▲이도필③원일클리닉이사장
▲이재철⑥세왕양조 대표
▲이중희③한국특수사료대표
▲이형우⑥이수의과병원장
▲장인호⑤경북대 교수
▲정원공⑦삼우금속공업대표
▲정진화⑥서울가축병원장
▲조명래⑦갈촌동물병원장

◇藥學大學

▲고형훈③고일약국 약사
▲권 박⑤한국세링 부사장
▲김상렬④안국컴퓨터 대표
▲김성근⑤독일약국 약사

▲김세겸⑤건우피약국 약사
▲김영호⑤제주공직자윤리委
▲김한길③제생당약국 약사
▲김홍대⑤동진약국 약사
▲도광룡⑥홍진약국 약사
▲박명휘⑥前세명약국 약사
▲박종훈⑦동국제약 부회장
▲송창진⑤송원약품 회장
▲양준호⑤경남제약 회장
▲엄태운③원자력研 본부장
▲이승본⑤前태을약국 약사
▲이홍주⑤삼희약품 부사장
▲임중기⑤성균관대명예교수
▲정종한⑦보명사약국 약사
▲조경일⑥명문제약 회장
▲주영현④前신갈약국 약사
▲최인영⑤봉민약국 약사
▲허 백⑦서울약국 약사
▲허 용⑦삼일제약 회장

◇音樂大學

▲김만복④前속명여대 학장
▲이종국⑥교원대 교수
▲조삼진⑥건국대 교수

◇醫科大學

▲강내열⑥강안과의원장
▲강순용⑥민생의원장
▲고재균⑥외과병원장
▲고종현⑦가야병원의과과장
▲권기택④권안과의원장
▲김경식⑦신경정신과의원장
▲김계태⑦소아과의원장
▲김관엽⑤상계백병원장
▲김광명⑦서울대 교수
▲김명주⑥한강정형외과의원
▲김병학⑦내과의원장
▲김원석⑥파부과의원장
▲김중호⑥강남성모병원실장
▲김현집⑦서울대 교수
▲노 영⑦성형외과의원장
▲동영송⑥동의과의원장
▲문명상⑥강남성모병원과장
▲박선규④의학신문 회장
▲박성구⑥자선산부인과의원
▲박승무⑦윤내과의원장
▲박원희⑦인하대 교수
▲박조렬③신경정신과의원장
▲박창서⑦국립의료원전문의
▲박희욱⑥산부인과의원장
▲배종화⑥경희대 교수
▲백만기⑦서울대 명예교수
▲변상현⑦동수원병원 이사장
▲손근찬⑤단대병원의료처장
▲송원식⑦송의과의원장
▲송희승⑤내과의원장
▲심보성④서울대 명예교수
▲안문성⑦이비인후과의원장
▲오승환⑥신경정신과의원장
▲우동영⑥우동영의원장
▲우종인⑦서울대 교수
▲유성희⑥동서울병원장
▲유인상③전주안과의원장
▲유지소④중앙병원내과과장
▲이갑순⑥삼덕정형외과원장
▲이광호⑦경상대 학장
▲이민재⑤고려대 교수
▲이병윤⑤명륜신경정신과
▲이부영⑤서울대 교수
▲이상용⑦내과의원장
▲이성우⑤의료보험심사위원
▲이성준⑥계명대 교수

▲이수철⁷⁸ 신경정신과의원장
▲이용진⁵⁰ 자산의원장
▲이우용⁷¹ 한국병원장
▲이은태⁶⁰ 외과의원장
▲이인수⁴⁸ 前대전중앙병원장
▲이태호⁷⁸ 산부인과의원장
▲이필우⁵⁹ 이필우의원장
▲정진택⁵⁰ 정외과의원장
▲정창생⁶⁶ 정창생의원장
▲정태완⁷⁰ 영일의원장
▲최 용⁶⁹ 서울대 교수
▲최경진⁷⁴ 비노기과의원장
▲최용목⁶⁷ 경희대 교수
▲최인수⁶⁹ 최소아과의원장
▲최정연⁷⁴ 서울대 교수
▲추광철⁶⁶ 삼성병원 과장
▲한기호⁶¹ 한외과의원장
▲한동수⁶⁵ 신경정신과의원장
▲한인권⁷⁷ 제일병원내과과장
▲홍성태⁷⁹ 서울대 교수
▲황성남⁷⁵ 중앙대 교수

◇ 齒科大學

▲강구한⁶⁵ 강구한치과의원장
▲강근수⁷⁰ 강근수치과의원장
▲구옥경⁶⁸ 구옥경치과의원장
▲권일근⁶⁰ 권치과의원장
▲김 일⁵⁵ 김일치과의원장
▲김동자⁵⁶ 명동치과의원장
▲김성룡⁶⁴ 김성룡치과의원장
▲김성수⁷⁴ 김성수치과의원장
▲김소현⁶⁸ 김소현치과의원장
▲김영철⁶⁷ 달성치과의원장
▲김원우⁵⁶ 김원우치과의원장
▲김재곤⁶⁸ 김재곤치과의원장
▲김중훈⁷³ 김중훈치과의원장
▲김지호⁶⁵ 예일치과의원장
▲김진환⁶⁸ 김진환치과의원장
▲노철진⁵⁸ 노철진치과의원장
▲모경집⁶⁶ 모경집치과의원장
▲박금태⁶⁴ 박금태치과의원장
▲박성규⁷³ 박치과의원장
▲박찬유⁷¹ 박찬유치과의원장
▲배우홍⁵⁶ 배우홍치과의원장
▲서현종⁷⁸ 서현종치과의원장
▲성훈경⁶⁹ 성치과의원장
▲손 근⁷¹ 손치과의원장
▲신현철⁶⁰ 신현철치과의원장
▲심대섭⁵⁹ 심치과의원장
▲양일수⁷⁹ 양치과의원장
▲양희일⁶⁰ 양치과의원장
▲유서윤⁵⁸ 유서윤치과의원장
▲이규철⁶⁸ 이규철치과의원장
▲이병환⁶⁵ 세명치과의원장
▲이승환⁶⁶ 이승환치과의원장
▲이영희⁶⁰ 한양치과의원장
▲이형규⁶¹ 이형규치과의원장
▲임성균⁶⁵ 임성균치과의원장
▲임태홍⁵⁵ 임태홍치과의원장
▲장상현⁶⁵ 장상현치과의원장
▲전태수⁶⁰ 전치과의원장
▲정광현⁶³ 중앙치과의원장
▲정기근⁶⁷ 정기근치과의원장
▲정종선⁶¹ 정치과의원장
▲조 일⁵⁴ 조일치과의원장
▲조성직⁵⁹ 조치과의원장
▲조성환⁶⁸ 신반포치과의원장
▲최성근⁷¹ 최성근치과의원장
▲홍병준⁶² 홍병준치과의원장
▲황규선⁶⁰ 국회의원
▲황오현⁵⁶ 황오현치과의원장
▲황의강⁶⁷ 황의강치과의원장

◇ 大學院

▲김태승⁷⁸ 호유관매 전무
▲이수곤⁶⁶ 전남대 교수

◇ 經營大學院

▲김임식⁷⁰ 동의대재단이사장
▲김홍식⁷¹ 경주법주 회장
▲김환중⁷⁰ 우영산업 회장
▲이상락⁶⁷ 성광화성 대표
▲이윤수⁶⁸ 대한언론인회이사
▲이준학⁷⁰ 태아산업 회장
▲장몽인⁶⁷ 홍우(주) 회장

◇ 保健大學院

▲박순영⁶⁵ 경희대 교수
▲이명화⁶² 핵전예방의사연맹
▲이영남⁷³ 경희대 교수
▲정영채⁶¹ 중앙대 교수
▲조동복⁷⁴ 삼거실업 사장

◇ 司法大學院

▲강윤호⁷⁰ 변호사
▲김중권⁶⁹ 변호사
▲신상두⁶⁶ 감사원 감사위원
▲오복동⁶⁴ 변호사
▲이건개⁶⁹ 국회의원
▲이원성⁶⁷ 대구고검장
▲주광일⁷⁰ 대전고검장

◇ 新聞大學院

▲김기도⁷² 前국회의원
▲김태문⁷³ 쌍용그룹 사장

◇ 行政大學院

▲권문용⁷⁰ 강남구청장
▲김권수⁷¹ 건설교통 수도권
▲김인동⁶⁷ 서울시의원
▲방극윤⁶⁶ 서울지방노동청장
▲양석호⁶⁷ 前상지대 총장
▲이종찬⁷² 前국회의원
▲이현승⁶¹ 명지대 교수
▲이효계⁶⁸ 한국토지공사사장
▲전준환⁶⁹ 변리사
▲정국현⁷⁴ 환경부상하수도국
▲정우택⁷⁹ 국회의원
▲조성근⁶¹ 건설진흥명예회장
▲최계순⁶⁵ 반포산업 대표

◇ 環境大學院

▲이재역⁷⁷ 도화종합기술전무

◇ 국가정책과정

▲남평우⁶¹ 국회의원
▲최재승⁶⁸ 국회의원

일 반

◇ 人文大學

▲강인자⁶⁶ ▲공영화⁷⁹
▲김상호⁸⁵ ▲김태현⁸¹
▲오창식⁹³ ▲임미화⁸⁹
▲조인식⁸⁷ ▲허필의⁷⁷
▲홍영호⁷⁹ ▲황현길⁸⁹

◇ 社會科學大學

▲김기범⁸⁵ ▲김은조⁸⁶
▲김종민⁸⁹ ▲김태일⁸⁷
▲김홍수⁸⁹ ▲문승현⁸⁷
▲설대수⁸⁶ ▲송민경⁹⁴
▲이정호⁸⁷ ▲임경훈⁸⁵
▲장원영⁸¹ ▲정인역⁷⁷

▲지청산⁸⁷ ▲차광수⁸¹
▲최계영⁸⁷ ▲하성룡⁸⁹
▲한태원⁸⁵ ▲허동호⁸⁹
▲황선웅⁷⁶

◇ 自然科學大學

▲권중걸⁹⁰ ▲김영제⁸⁸
▲박진호⁸⁸ ▲성주호⁸⁶
▲오재욱⁹⁵ ▲이봉완⁸⁷
▲이원애⁷⁶ ▲이재용⁸⁶
▲이한형⁸⁰ ▲조관호⁷⁸
▲최성화⁸⁹ ▲홍기표⁸⁹

◇ 家政大學

▲고영숙⁷⁴ ▲김성진⁷³
▲김은실⁸⁷ ▲김인원⁸¹
▲김정희⁷⁶ ▲박문학⁶⁴
▲박지영⁹¹ ▲송경과⁷⁴
▲윤혜원⁸⁶ ▲이미영⁸⁷
▲이미자⁸⁵ ▲이성란⁸⁷
▲이승미⁸⁷ ▲이화숙⁶¹
▲임인순⁶² ▲장미영⁸⁹
▲최규순⁶⁵

◇ 看護大學

▲김혜성⁷¹ ▲박상련⁷²
▲박은선⁶⁷ ▲이추월⁵⁴
▲이흥자⁸⁰ ▲정윤남⁷⁴

◇ 經營大學

▲김기영⁷⁸ ▲김보민⁹⁶
▲김성준⁷⁸ ▲김운호⁹²
▲김정환⁷⁸ ▲김태영⁹⁶
▲노상규⁸⁷ ▲박영희⁹⁶
▲박정완⁹⁵ ▲박주원⁷⁷
▲박주형⁸⁹ ▲서석형⁸⁹
▲송영호⁹⁶ ▲신동수⁹⁶
▲안태식⁸⁰ ▲오재인⁸⁰
▲정창호⁸⁹ ▲전성용⁹¹
▲최병호⁸⁷ ▲한선구⁸⁵

◇ 工科大學

▲강관원⁶⁵ ▲강무진⁷⁷
▲강선교⁹⁶ ▲강세훈⁷⁵
▲강창훈⁷⁸ ▲강태갑⁶³
▲강항식⁸⁵ ▲고원룡⁶⁸
▲곽노찬⁷³ ▲곽해근⁷⁰
▲권순철⁷⁸ ▲권영각⁷⁰
▲권용석⁸⁹ ▲권태원⁶⁸
▲김관형⁸³ ▲김광명⁶²
▲김광우⁷⁵ ▲김광현⁶⁸
▲김광현⁷⁵ ▲김기현⁴⁶
▲김명환⁷³ ▲김병태⁷³
▲김삼성⁶⁹ ▲김성관⁹¹
▲김성로⁵⁶ ▲김성태⁷⁷
▲김신태⁶⁷ ▲김영현⁷⁹
▲김용덕⁸⁰ ▲김용필⁸⁷
▲김을권⁶¹ ▲김인규⁶⁹
▲김인상⁷¹ ▲김재근⁶⁹
▲김재중⁵³ ▲김정환⁹¹
▲김중목⁷⁰ ▲김종채⁶¹
▲김중흡⁴⁹ ▲김주영⁶⁴
▲김지호⁹⁶ ▲김진필⁵⁰
▲김춘자⁶³ ▲김태성⁶⁶
▲김현수⁷⁰ ▲나종태⁷¹
▲노무섭⁷³ ▲노웅래⁸⁹
▲노정규⁶⁶ ▲노태성⁸²
▲노희호⁸⁷ ▲류인수⁹⁵
▲류재은⁷⁷ ▲류해진⁸⁷
▲류호근⁹² ▲문한규⁶⁵
▲박규원⁷⁹ ▲박달수⁷³
▲박동원⁷⁵ ▲박동진⁷¹

▲박석준⁶⁵ ▲박장영⁶⁴
▲박준민⁶³ ▲박진우⁷⁴
▲방성훈⁸⁹ ▲백제인⁷⁸
▲변영화⁶³ ▲서대웅⁹²
▲서상목⁷¹ ▲서승구⁴¹
▲서진우⁸⁴ ▲석성봉⁵⁹
▲성하명⁸³ ▲송시현⁶⁷
▲송완석⁶⁹ ▲송찬호⁹⁵
▲신건일⁷⁰ ▲신동주⁸³
▲신성철⁷⁹ ▲신영수⁶⁴
▲신원용⁶⁵ ▲심용기⁶⁷
▲심흥주⁴⁸ ▲안승원⁷⁵
▲안종길⁵⁶ ▲양배덕⁶¹
▲양점식⁸⁶ ▲양홍모⁶⁸
▲오년호⁶⁹ ▲오상운⁹²
▲오세환⁶⁵ ▲오승은⁷⁹
▲우진태⁷⁹ ▲윤만중⁶⁶
▲윤석열⁷⁹ ▲윤승중⁶⁵
▲윤여경⁵² ▲윤영재⁵⁶
▲윤영희⁵⁵ ▲윤의준⁸³
▲윤태석⁵¹ ▲이경환⁶⁸
▲이경환⁷⁰ ▲이광복⁷¹
▲이광호⁷⁰ ▲이근섭⁶⁶
▲이근수⁸¹ ▲이기동⁸⁷
▲이낙주⁵¹ ▲이동찬⁶³
▲이민규⁸⁶ ▲이박일⁷⁰
▲이병호⁹⁵ ▲이복재⁷⁵
▲이상렬⁵⁶ ▲이석원⁹⁵
▲이수훈⁶⁰ ▲이승복⁶⁵
▲이시명⁶⁸ ▲이신욱⁶⁶
▲이영근⁷⁶ ▲이영근⁸⁰
▲이영우⁷⁹ ▲이용철⁸⁹
▲이용훈⁵⁵ ▲이인규⁶²
▲이정남⁶² ▲이정옥⁶⁷
▲이종남⁷⁷ ▲이종산⁶³
▲이천만⁹⁵ ▲이풍기⁶²
▲이혁세⁹¹ ▲이현호⁶⁴
▲이형근⁶⁷ ▲이후철⁶⁷
▲임규원⁶⁵ ▲임동조⁷⁵
▲임병화⁵² ▲임상탁⁶¹
▲임석현⁹⁵ ▲임우간⁷⁸
▲임태원⁴⁹ ▲장동립⁶⁴
▲장재언⁸⁸ ▲장래래⁷⁵
▲전배혁⁸¹ ▲전상규⁹²
▲전중환⁵⁷ ▲정 준⁶⁶
▲정균양⁷² ▲정동운⁶⁸
▲정문조⁷³ ▲정석우⁶⁵
▲정운선⁶⁰ ▲정찬영⁵⁸
▲정하석⁶⁵ ▲조규남⁷⁶
▲조동식⁸⁶ ▲조동호⁷⁹
▲조의식⁹⁶ ▲조종두⁶³
▲주원택⁸⁵ ▲천성록⁸³
▲최 연⁷² ▲최기언⁷⁸
▲최달우⁷⁵ ▲최병두⁶²
▲최성식⁹² ▲최송학⁷¹
▲최준수⁸⁷ ▲최중현⁶¹
▲한동수⁸³ ▲한보식⁶⁰
▲한복규⁶⁸ ▲한상준⁶⁷
▲한재은⁵⁸ ▲홍 경⁷¹
▲홍안의⁶⁷ ▲홍재겸⁶⁹
▲황성혁⁶⁵ ▲황정태⁹⁴
▲황정현⁹⁶ ▲황희연⁷⁹

◇ 農科大學

▲강문주⁴⁸ ▲강창식⁶²
▲고영규⁸⁸ ▲권오복⁶⁶
▲김명동⁹⁴ ▲김상균⁷⁹
▲김순규⁶⁹ ▲김인상⁶⁹
▲김필식⁶⁵ ▲김현영⁶⁵
▲김홍렬⁵⁴ ▲박상현⁷⁴
▲박상홍⁵⁹ ▲박승준⁶⁷
▲박창호⁶² ▲박혜자⁶⁴

▲배기환⁴⁹ ▲성배영⁶⁶
▲송춘중⁵⁹ ▲신상혁⁵⁷
▲신서균⁶⁴ ▲신성기⁵⁹
▲신준우⁵⁶ ▲오홍수⁶⁰
▲원후식⁶² ▲유근학⁶⁰
▲유기형⁵⁸ ▲유달영³⁶
▲유병민⁸⁸ ▲유정수⁷⁰
▲윤여창⁷⁹ ▲윤재수⁷⁰
▲이계홍⁶² ▲이거성⁵³
▲이덕원⁷⁴ ▲이무성⁷⁰
▲이병목⁶⁹ ▲이병철⁶³
▲이상욱⁶² ▲이서래⁵⁵
▲이영열⁶⁰ ▲이용국⁶⁶
▲이윤우⁵⁷ ▲이은종⁶³
▲이재성⁶⁶ ▲이재홍⁵⁸
▲이충익⁸⁷ ▲임순만⁶⁹
▲임용재⁷¹ ▲임종환⁸⁶
▲장시출⁶⁴ ▲정건성⁶⁷
▲정규용⁴⁹ ▲정병기⁶⁸
▲정용복⁵⁵ ▲조동삼⁵⁴
▲조성지⁵⁶ ▲조성환⁵⁶
▲조용섭⁵⁸ ▲조진환⁵⁸
▲조한보⁵² ▲지근진⁶⁴
▲진광혁⁵⁷ ▲최동열⁵⁵
▲최봉영⁸² ▲최영국⁵⁹
▲최유풍⁶⁶ ▲하인환⁵⁵
▲한상원⁵⁵ ▲홍양현⁹⁰
▲홍행홍⁷¹ ▲황건식⁶⁷
▲황병훈⁸⁶

◇ 文理科大學

▲강승렬⁶⁶ ▲강신규⁵⁶
▲강진원⁵⁹ ▲강해원⁶⁰
▲강황석⁶⁵ ▲고인석⁶⁰
▲공대식⁶⁰ ▲권영래⁷¹
▲권오관⁶⁴ ▲김갑용⁷³
▲김관식⁶² ▲김기봉⁵³
▲김대천⁶³ ▲김명석⁷²
▲김명수⁵⁸ ▲김병택⁵⁶
▲김상균⁷⁰ ▲김선길⁵³
▲김선우⁶⁵ ▲김시창⁶⁸
▲김영수⁶⁸ ▲김용필⁵⁵
▲김운룡⁶⁷ ▲김인섭⁵⁷
▲김중섭⁵⁵ ▲김찬수⁶⁴
▲김희자⁶⁷ ▲나형수⁶⁶
▲남광우⁵⁰ ▲남궁용근⁶³
▲노건일⁶⁴ ▲민경덕⁶³
▲박봉환⁵⁸ ▲박승표⁶⁸
▲박영순⁷⁵ ▲박종철⁶⁸
▲백태남⁶⁵ ▲봉종현⁶⁶
▲서학원⁷¹ ▲송덕희⁵⁶
▲송병희⁵⁵ ▲송상용⁶²
▲신병진⁵⁷ ▲안상진⁵³
▲안휘준⁶⁷ ▲양서영⁵⁷
▲우형규³⁸ ▲윤무섭⁵⁸
▲윤생남⁶⁴ ▲윤석구⁶⁵
▲이경재⁶³ ▲이도영⁶¹
▲이동익⁶⁰ ▲이명구⁴⁷
▲이명석⁶⁶ ▲이사계⁶³
▲이상현⁶⁹ ▲이영서⁷⁵
▲이원구⁶⁰ ▲이정숙⁶¹
▲이정훈⁵⁷ ▲이종후⁴⁸
▲이춘기⁵⁸ ▲이혜구⁹¹
▲이혜봉⁶⁶ ▲임정섭⁵⁴
▲장운걸⁴⁸ ▲장종하⁶⁶
▲전광현⁶¹ ▲전두하⁵²
▲전명애⁶⁶ ▲전해종⁴⁷
▲정 탄⁷⁰ ▲정지영⁶¹
▲정춘영⁵⁵ ▲지건길⁶⁶
▲최 혁⁶⁸ ▲최문석⁶⁷
▲최영부⁶⁷ ▲최홍룡⁶⁴
▲하영진⁵⁷ ▲한철순⁶²

▲홍순호⁶⁶ ▲홍주봉⁷³
▲황필례⁵⁶

◇美術大學

▲김규봉⁹³ ▲김승희⁶⁹
▲민병목⁵⁹ ▲박한진⁶¹
▲심죽자⁵⁵ ▲안명숙⁷¹
▲원승덕⁷² ▲이강소⁶⁵
▲이귀향⁵⁶ ▲이성욱⁷⁴
▲이은화⁷² ▲이지희⁵⁸
▲이혜인⁶⁸ ▲최선평⁶⁸
▲추명희⁷⁴ ▲홍동식⁵¹

◇法科大學

▲강성욱⁸⁹ ▲강태형⁶¹
▲고원증⁴³ ▲고정환⁵⁸
▲권순일⁶¹ ▲김경현⁵⁷
▲김근태⁵⁷ ▲김만기⁷²
▲김상태⁷⁰ ▲김성민⁶¹
▲김성한⁶⁸ ▲김세돈⁷⁹
▲김영기⁷⁰ ▲김용포⁶⁵
▲김월택⁶⁵ ▲김윤도⁴²
▲김재형⁵⁶ ▲김재호⁶¹
▲김재훈⁶⁶ ▲김정기⁵⁸
▲김종인⁷⁵ ▲김종혁⁶⁴
▲김지욱⁷⁵ ▲김진홍⁶¹
▲김태범⁸⁵ ▲김학수⁵¹
▲김효성⁶⁵ ▲도세경⁶⁵
▲류광현⁸⁹ ▲문창성⁷²
▲박석주⁵² ▲박성준⁶⁹
▲박영철⁸⁶ ▲박은석⁸⁷
▲박태석⁸¹ ▲방계성⁶⁴
▲배재욱⁶⁸ ▲백낙륜⁵⁵
▲변승천⁸⁷ ▲손경덕⁸⁴
▲송재현⁶⁴ ▲신석호⁶¹
▲신유균⁶⁸ ▲신현학⁴³
▲안동수⁶³ ▲안병익⁸⁹
▲안병한⁶¹ ▲안철환⁶⁷
▲양승국⁸¹ ▲양희중⁷²
▲오상걸⁶² ▲오석준⁶⁴
▲오정돈⁸³ ▲원동규⁶⁴
▲유재성⁶⁴ ▲윤병만⁵⁶
▲윤철구⁶² ▲이건호⁶¹
▲이경환⁸⁹ ▲이교선⁵⁵
▲이근일⁶⁷ ▲이대영⁶²
▲이동규⁶⁷ ▲이상룡⁷¹
▲이상민⁵⁶ ▲이상희⁵⁸
▲이승용⁶⁴ ▲이영기⁷⁵
▲이용현⁵⁰ ▲이원태⁵⁷
▲이재원⁸¹ ▲이춘근⁵⁷
▲이태일⁶⁸ ▲이학무⁵⁹
▲임동철⁷² ▲임무섭⁵⁶
▲임효남⁷³ ▲정규일⁵⁶
▲정선숙⁶³ ▲정용인⁶⁴
▲조문부⁵⁹ ▲조영운⁶¹
▲조해근⁸² ▲주경진⁶⁰
▲진병춘⁷⁴ ▲최동렬⁶⁸
▲최병무⁶³ ▲최신석⁶³
▲최원백⁴¹ ▲최재훈⁵³
▲한형건⁵⁴ ▲함철상⁴⁸
▲황선태⁷⁰ ▲황성규⁶⁵

◇師範大學

▲고병철⁶⁵ ▲곽요연⁵³
▲김금순³⁶ ▲김달수⁶⁹
▲김덕빈⁴⁹ ▲김봉선⁹⁰
▲김상섭⁸⁵ ▲김연주⁸⁹
▲김영숙⁵⁵ ▲김영애⁸⁹
▲김영자⁷¹ ▲김영자⁸⁰
▲김영철⁵⁶ ▲김일기⁶²
▲김재호⁷⁵ ▲김정률⁵⁵
▲김정숙³⁹ ▲김정숙⁵⁹

▲김정순⁶⁹ ▲김진영⁶⁹
▲김혜정⁸⁹ ▲김혜정⁹⁵
▲나고찬⁵⁶ ▲나병삼⁶⁸
▲남규옥⁴³ ▲남복희⁴³
▲노영식⁶⁹ ▲노영희⁷⁵
▲당현숙⁶⁵ ▲문창덕⁴²
▲민무일⁶⁹ ▲민병철⁶⁵
▲박경희⁷⁶ ▲박승용⁸⁰
▲박인근⁶³ ▲박정숙⁷⁰
▲박종곤⁶⁴ ▲박종현⁷⁴
▲박춘식³⁹ ▲배은재⁷⁰
▲백현기⁵¹ ▲서은경⁸⁰
▲서정기⁵⁷ ▲서창휘⁵⁶
▲손종국⁵⁹ ▲송호열⁸³

◇獸醫科大學

▲신영⁸⁷ ▲안창원⁸⁷
▲예원혜⁶⁵ ▲오진경³⁸
▲우인섭⁵¹ ▲유광렬⁵⁶
▲유양옥⁷⁹ ▲윤석원⁷⁵
▲윤희원⁶⁰ ▲이기봉⁵⁸
▲이두현⁵⁰ ▲이민숙⁸⁸
▲이방렬⁶⁹ ▲이병준⁶³
▲이복연⁵¹ ▲이석영⁵⁹
▲이성범⁵² ▲이옥순⁵⁴
▲이우범⁶¹ ▲이우진⁵⁷
▲이인수⁵⁸ ▲이재균⁹³
▲이종근³⁹ ▲이지홍⁵⁶
▲이혜선⁶⁸ ▲이흥종⁵⁸
▲임수진⁸⁸ ▲임혜옥³⁹
▲전남석⁵⁹ ▲정국진⁴⁰
▲정명수⁷³ ▲정정현⁵⁶
▲정호경⁵⁶ ▲정호영⁷¹
▲정홍대⁸⁷ ▲제옥례³⁵
▲조성계⁵⁸ ▲조시영⁸⁹
▲조윤숙⁶⁰ ▲조은분⁴²
▲주용규⁶⁴ ▲진덕순⁴¹
▲차영남⁵⁵ ▲최근무⁶²
▲최기남⁵⁶ ▲최돈성⁵⁷
▲최익규⁵⁶ ▲최태준⁷³
▲한경희⁹² ▲한학선⁷⁷
▲현경애⁴⁰ ▲홍경만⁵⁸
▲홍근일⁵⁷ ▲홍예숙⁴⁶
▲홍종봉⁵⁸ ▲황경화⁵⁷
▲황승희⁷⁰

◇商科大學

▲강석홍⁷⁰ ▲강영주⁶⁶
▲권만식⁶⁹ ▲권안식⁷²
▲김건수⁶⁰ ▲김기준⁵⁹
▲김기희⁷⁰ ▲김만현⁵⁶
▲김상은⁵⁷ ▲김영식⁷⁰
▲김유일⁵⁷ ▲김장환⁵⁶
▲김정기⁶⁵ ▲김진호⁵⁸
▲김철배⁶³ ▲김현섭⁶³
▲김희석⁵⁰ ▲남영태⁶⁹
▲류태환⁶⁴ ▲박동진⁶⁵
▲박한수⁵⁷ ▲박효민⁷¹
▲배상천⁶³ ▲배진규⁵⁷
▲백승태⁷⁰ ▲백창기⁶⁵
▲변영일⁶⁵ ▲사공일⁶⁴
▲손광식⁶⁰ ▲송문섭⁵²
▲신종우⁶² ▲오정현⁵⁸
▲오정환⁶⁵ ▲오태용⁶⁸
▲우명환⁶⁷ ▲우일균⁵⁶
▲유권상⁷⁵ ▲유방창⁶⁵
▲유백렬⁷⁰ ▲유수길⁶⁶
▲육동진⁵⁷ ▲윤길현⁵⁶
▲윤석하⁶⁸ ▲윤재우⁶⁵
▲이갑현⁶⁸ ▲이봉식⁵⁵
▲이상경⁵⁵ ▲이석우⁶⁷
▲이선호⁶⁴ ▲이세근⁷⁰
▲이수후⁶³ ▲이영서⁶⁵
▲이영주⁵⁷ ▲이좌영⁶²

▲이창옥⁵¹ ▲이창준⁵⁷
▲이태진⁶⁴ ▲이한희⁵⁸
▲이황배⁷³ ▲임승봉⁶¹
▲장성운⁷⁶ ▲장인상⁷⁰
▲전영일⁷⁵ ▲정인승⁵⁴
▲주주섭⁶⁴ ▲지창수⁵⁹
▲진념⁶³ ▲채정렬⁶⁵
▲최봉석⁷⁴ ▲최용호⁵⁴
▲최철현⁵⁷ ▲추수옥⁵⁷
▲하사랑⁵⁹ ▲하지명⁴⁸
▲하진수³⁹ ▲현임종⁶⁰
▲황금학⁶⁴

◇獸醫科大學

▲김동신⁶⁰ ▲김두명⁵⁶
▲김재하⁵⁶ ▲김태희⁶³
▲박유순⁶⁷ ▲박진성⁹⁶
▲서익수⁵⁷ ▲서창우⁶⁷
▲송남훈⁶⁸ ▲유한상⁸²
▲윤석순⁶⁴ ▲이규본⁶⁵
▲이덕주⁶⁴ ▲이문한⁷³
▲이수창⁶⁷ ▲정특⁶⁶
▲정승기⁵⁸ ▲정영화⁶⁰
▲정태석⁶⁸ ▲정흥래⁶⁴
▲지순환⁶⁶ ▲지영민⁶⁵
▲최희인⁵⁶ ▲홍성민⁷⁰

◇藥學大學

▲곽의중⁷⁷ ▲김삼미⁸⁹
▲김숙자⁵⁷ ▲김양근⁵⁵
▲김재완⁶² ▲김한주⁶¹
▲박병국⁶³ ▲박정섭⁵¹
▲박종호⁷¹ ▲변영주⁹⁴
▲신성목⁷⁴ ▲이갑희⁵⁷
▲이세복⁶⁸ ▲이원희⁷²
▲이혜숙⁷⁸ ▲장정일⁷⁰
▲제금연⁷² ▲천병년⁸¹
▲최수일⁶⁵ ▲최영자⁵⁹
▲한규희⁸⁸ ▲홍기석⁵⁷
▲한복영⁴⁹

◇音樂大學

▲고순자⁵⁶ ▲김기은⁸⁹
▲김명희⁶⁸ ▲김옥현⁷⁰
▲김완주⁹⁰ ▲목완수⁷⁷
▲문명자⁶⁸ ▲박근정⁸⁷
▲박정자⁶⁰ ▲박현선⁶⁰
▲방영호⁸⁴ ▲백원정⁶⁹
▲신계후⁶³ ▲신혜진⁸⁶
▲오유애⁸⁰ ▲이기정⁸⁶
▲이대구⁷⁶ ▲이명희⁷²
▲이방숙⁶⁵ ▲이상희⁸⁶
▲이영숙⁵⁹ ▲이옥엽⁶⁷
▲이용일⁶¹ ▲이주희⁹³
▲이해식⁶⁹ ▲전성환⁷²
▲정복주⁷⁰ ▲조상현⁵¹
▲조은조⁷⁴ ▲주현정⁹⁶
▲최준준⁷² ▲최희순⁶⁹
▲홍영순⁷⁶ ▲황현정⁸⁷

◇醫科大學

▲강영진⁸⁹ ▲공인호⁴¹
▲기정일⁶⁵ ▲김구수⁷⁷
▲김남호⁸⁰ ▲김덕호⁴¹
▲김성근⁵¹ ▲김성심⁵⁷
▲김세영⁷⁶ ▲김종정⁶²
▲김현우⁷⁰ ▲동은실⁸⁷
▲박제경⁴⁹ ▲박찬일⁶⁵
▲변선규⁴⁶ ▲송운영⁶¹
▲송정환⁸⁸ ▲송제일⁷⁹
▲신기식⁸⁵ ▲신영태⁷³
▲신원석⁸⁸ ▲옹상길⁶⁴

▲원중희⁵⁵ ▲윤경선⁶⁹
▲이무용⁸⁸ ▲이병권⁵⁷
▲이상곤⁷⁹ ▲이상운⁷⁷
▲이상준⁶⁶ ▲이선호⁵⁵
▲이성근⁵⁵ ▲이승남⁸²
▲이재순⁵⁹ ▲이호규⁸³
▲임영식³² ▲임하진⁸⁵
▲장동을⁴¹ ▲장학진⁷⁰
▲정용인⁷⁴ ▲조광수⁵³
▲조수경⁵³ ▲조현오⁷¹
▲최용언⁵⁶ ▲한현⁸⁴
▲한경일⁸⁸ ▲한동환⁶⁵
▲한정수⁷⁷ ▲홍성훈⁶⁷

◇齒科大學

▲김경옥⁷⁶ ▲김미자⁸⁵
▲김봉환⁸⁶ ▲김영수⁵⁸
▲김오환⁶⁸ ▲김정태⁷²
▲김평환⁷⁹ ▲김효순⁷⁵
▲류경희⁷⁵ ▲목성규⁸⁷
▲박용한⁸⁴ ▲배응준⁵⁹
▲심연택⁷⁴ ▲안중철⁷⁷
▲유양석⁴⁹ ▲윤경호⁶²
▲이건수⁷¹ ▲이만선⁷²
▲이봉재⁶¹ ▲이성종⁷⁸
▲이재명⁶⁹ ▲이종복⁴⁹
▲이중오⁸² ▲이진규⁶⁴
▲전영섭⁶⁶ ▲조창홍⁵⁰
▲채영제⁵⁵ ▲천옥진⁸⁶
▲최원중⁴³ ▲한세현⁷¹
▲현재만⁸⁴ ▲홍현주⁸⁸
▲황경⁵⁷ ▲황준⁶⁹
▲황규동⁷¹ ▲황성명⁵⁵

◇大學院

▲권숙표⁷⁰ ▲김문협⁶⁸
▲김영환⁷⁶ ▲김정호⁸⁷
▲나기덕⁸⁴ ▲나병만⁷⁷
▲문수진⁷⁷ ▲박경채⁸²

▲박재영⁷² ▲윤경현⁶⁴
▲이재구⁶⁶ ▲정호선⁷⁵
▲조재연⁸² ▲진선주⁶⁹

◇經營大學院

▲김연식⁷² ▲김용범⁷¹
▲송효순⁶⁷ ▲안종훈⁷¹
▲전동준⁷¹

◇教育大學院

▲이학원⁷⁴

◇保健大學院

▲강탁립⁷⁶ ▲김운서⁷⁴
▲양정희⁸⁰ ▲정문호⁶⁸
▲최상순⁷³

◇司法大學院

▲김상준⁶⁹ ▲조무제⁶⁷

◇新聞大學院

▲윤임술⁶⁹

◇行政大學院

▲강윤모⁷⁰ ▲강정훈⁷⁶
▲김경섭⁷⁵ ▲김동호⁷⁰
▲김상진⁶⁷ ▲박찬도⁶⁶
▲성낙합⁸⁵ ▲이석봉⁶⁴
▲이중근⁷⁰ ▲이지언⁸⁷
▲이호인⁸⁹ ▲장준규⁶⁷
▲장학상⁷⁰ ▲정동준⁶⁷
▲정여칠⁷⁴

◇環境大學院

▲윤용희⁸⁵ ▲정인동⁸³
▲한태호⁸⁹

◇최고경영자과정

▲권태문²⁸ ▲김기성¹⁹

▲김영동²¹ ▲김준언³⁴
▲김진섭⁹ ▲문성균¹
▲박기태³⁸ ▲박승만²
▲방민환³⁸ ▲백정훈⁴⁰
▲서청원²⁶ ▲성승모¹
▲송문호³⁸ ▲신재성⁶
▲안창준⁹ ▲오희택¹
▲유병운²³ ▲이경수²⁸
▲이동대³⁴ ▲이병기¹⁶
▲이신웅²⁰ ▲이종수⁴¹
▲이종연²⁴ ▲정승태²⁷
▲정재봉⁴⁰ ▲정태봉²¹
▲채의승³⁸ ▲최권영³⁵
▲최현열³ ▲하정길⁶
▲한승준²⁷ ▲허정섭¹⁷

◇최고산업전략과정

▲김만하¹² ▲김명식⁸
▲나재암⁷ ▲윤영철⁶
▲이건창⁵ ▲정영수⁸
▲조한남¹⁴

◇국가정책과정

▲김제현¹⁶ ▲남상해³⁷
▲남종우³⁰ ▲문인갑²²
▲박종권²⁸ ▲손일권²⁶
▲안신환³⁴ ▲임동섭⁹
▲정동준¹¹ ▲정석균⁴⁰
▲정한균³² ▲조종익³⁹
▲최갑진³² ▲홍세기²⁶

◇고급금융과정

▲이성희⁶

월 계 : 91,698,704원
누 계 : 300,048,536원

“지금 동창회 신용카드를 신청하세요”



南敬熙(56년工大卒)
울산화학(주) 대표



白宗其(68년工大卒)
태광특수기계(주) 대표



金成吉(AIP 7기)
효천(주) 사장

〈발급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개 인

◇社會科學大學

▲이태환⁷⁷

◇家政大學

▲변영미⁹²

◇工科大學

▲김철빈⁷¹ ▲오대식⁹¹
▲임병연⁸⁷

◇農科大學

▲박광훈⁹² ▲박동아⁵⁸
▲손주선⁹⁵ ▲신익현⁸⁷

◇文理科大學

▲김기주⁷⁰

◇美術大學

▲윤영출⁸⁶

◇法科大學

▲박일재⁵⁹ ▲방영민⁸²
▲이강훈⁶² ▲이주영⁷⁴

◇師範大學

▲김재균⁷⁹ ▲김홍희⁶³
▲나민주⁸⁹ ▲홍정길⁶⁴

◇獸醫科大學

▲양재석⁹

◇藥學大學

▲남정원⁸⁹ ▲박만기⁶³
▲정재훈⁹⁷

◇大學院

▲곽영세⁸⁶

◇經營大學院

▲박정남⁷⁴ ▲배무환⁶⁸

◇최고경영자과정

▲정근화³⁶

◇최고산업전략과정